전략연구
2021-03

DSI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 연구 방향설정과 아젠다 발굴

이재민·한상헌·이은재·김지영 외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전략연구 2021-03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 연구 방향설정과 아젠다 발굴

이재민·한상헌·이은재·김지영 외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	• 이재민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지역학연구팀장
공동연구	• 한상헌 / 시민행복연구실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센터장 • 이은재 / 지속가능연구실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대외협력팀장 • 김지영 /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연구지원	• 박원경 / 지역학연구센터 조사원·충남대학교 박사과정 • 유병준 / 세종연구실 조사원·안동대학교 석사과정

전략연구 2021-03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 연구 방향설정과 아젠다 발굴

발행인 정 재 근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홈페이지: http://www.dsi.re.kr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44-868-3537 (FAX: 044-868-356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1장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3

1) '연결사회'의 진입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쇠퇴 ····· 3

2) 지역소멸의 등장과 현실화 ····· 3

3)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세종지역학' ····· 4

4) 왜 '대전세종지역학' 연구인가? ····· 5

2.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 6

3. 연구방법과 체계 ····· 7

1) 연구방법 ····· 7

2) 연구체계 ····· 8

2장 지역학 연구의 흐름과 대전과 세종의 지역학 동향 분석 ····· 11

1. 지역학 연구의 이론적 검토 ····· 13

1) 지역학 연구의 전개와 흐름 ····· 13

2) 지역학의 개념과 범주 ····· 16

2. 대전학·세종학의 탐구 과정과 특성 ····· 19

1) 미래발전을 위한 대전학 ····· 19

2) 대전학 연구의 정책기조 ····· 21

3) 지역 정체성 구현을 위한 '세종학' ····· 21

3. 지역 상생을 위한 대전세종학, 대전·세종학 ····· 28

1)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의 설립과 고민 ····· 28

2) 공생의 대전세종학, 상생의 대전·세종학 ····· 34

3장 대전세종지역학 연구의 방향 인식 ····· 39

1. AHP 설문을 통한 지역학 전문가의 인식 조사 ····· 41

1) AHP 설문의 특성과 조사의 목적 ····· 41

2) AHP 조사의 방법과 대상 ····· 42
2. 지역학 연구·활동의 중요도 인식 ····· 48
1) 지역학 대상과 범주 중요성에 관한 쌍대 비교 ····· 48
2) 지역학 연구 활동별 중요도 인식 ····· 52

4장 대전세종 지역학의 주요 아젠다 ····· 61
1. 대전학과 세종학 연구의 주요 아젠다 ····· 63
1) 지역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자료 발굴과 축적 ····· 63
2) 연구 범위의 명료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주제를 확장해 가야 ····· 67
3) 총서 간행의 전략적 선택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기획 ····· 68
4) 관계사 연구를 통해 지역학 연구의 확장과 도약을 모색해야 ····· 72
2. 지역학 활동의 주요 아젠다 ····· 74
1) 지속가능한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한 아젠다 설정 ····· 74
2) 지역학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아젠다 설정 ····· 76
3.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의 주요 아젠다 ····· 80
1) 지역 간 정체성의 이해는 상생의 선결 조건 ····· 80
2) 지역 간 공통의 목표를 향한 정서적 공유 아젠다 설정 ····· 85
3)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서 대전세종학회의 창립 ····· 88

5장 결론과 제안 ····· 91
1. 대전세종 지역학이 당면한 과제 ····· 93
1) 자료의 발굴과 축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지역학 연구 ····· 93
2) 지역생존의 절박함에서 출발하는 실천적 지역학의 필요성 ····· 94
3) 대전과 세종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상생의 지역학 연구 ····· 95
4) '대전세종 지역학'의 특별함을 부각하는 융합적 연구 ····· 96
5) 지역학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기본 조건 ····· 97
2. 지역학 연구 사례 : 대전세종의 생태·환경 분야 ····· 98
1) 대전세종 지역학 생태·환경 분야 연구 개요 ····· 98
2) 대전세종 지역학 관점을 통해 본 자연환경 현황 ····· 99

3) 생태환경 분야의 지역학 연구 동향 및 대전·세종 연구 방향 ····· 108

참고문헌 ····· 113

부 록 ····· 117

표 차례

[표 2-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지역학의 개념 ····· 17
[표 2-2] 기관·단체에서 진행했던 대전학 연구 ····· 19
[표 2-3] 전문 연구자가 진행했던 대전학 연구 ····· 20
[표 2-4]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행했던 대전 지역정체성과 관련한 연구과제 ····· 29
[표 2-5] 대전세종지역학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 (○ 대전, ● 세종) ····· 31
[표 2-6]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의 설립 이후의 활동 ····· 33
[표 3-1] 전문가 AHP 설문조사 답변자 ····· 42
[표 3-2] 연구결과물 도출의 세부 활동 중요도 비교 ····· 54
[표 3-3] 공식적 연구 활동의 세부 활동 중요도 비교 ····· 54
[표 3-4] 상시적 연구 활동의 세부 활동 중요도 비교 ····· 55
[표 3-5] 교육 사업의 세부 활동 중요도 비교 ····· 56
[표 3-6] 홍보와 네트워킹의 세부 활동 중요도 비교 ····· 56
[표 3-7] 지역학 활동의 세부 활동별 종합적 중요도 ····· 57
[표 3-8] 지역학 연구 활동 분야별 중요도 비교 ····· 58
[표 5-1] 대전광역시 산림 및 산지 면적 현황 ····· 99
[표 5-2] 대전광역시 주요 하천 현황 ····· 100
[표 5-3] 대전광역시 상관식생 현황 ····· 101
[표 5-4] 대전광역시 식물상 현황 ····· 101
[표 5-5] 대전광역시 보호야생생물 현황 ····· 103
[표 5-6] 대전광역시 산줄기 분포 현황 ····· 104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방법 ····· 7
[그림 1-2] 연구체계 ····· 9
[그림 2-1] 세종학 추진 현황 ····· 22
[그림 2-2] 세종학 포럼 안내 리플렛 ····· 23
[그림 2-3] 세종연합교양대학 안내 리플렛 ····· 24
[그림 2-4] 세종학 포럼 현장 모습 ····· 26
[그림 2-5] 세종학 비전과 기본방향(이재민 외, 2020) ····· 27
[그림 2-6] 공생의 관점으로 바라본 대전과 세종 ····· 34
[그림 2-7] 공생의 관점으로 바라본 대전세종학의 연구 아젠다 예시 ····· 35
[그림 2-8] 상생의 관점으로 바라본 대전과 세종 ····· 36
[그림 2-9] 상생의 관점으로 바라본 대전+세종학의 연구 아젠다 예시 ····· 37
[그림 3-1] 현재 지역학 추진에 대한 평가 ····· 49
[그림 3-2] 향후 지역학의 지향성 ····· 49
[그림 3-3] 지역학 연구 활동 분야별 중요도 ····· 59
[그림 4-1] 서현주(2011), 「3~5세기 금강유역권의 지역성과 확산」, 『호남고고학보』37권 ····· 72
[그림 4-2] 대구경북학회 〈낙동강 문명사〉 ····· 73
[그림 4-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2020), 〈금강의 역사와 문화〉 ····· 73
[그림 4-4] 대전시에서 발간한 '역사와 문화' 교재(2012) - 초등교재(좌), 중등교재(우) ····· 76
[그림 4-5]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 공동합의(2020) ····· 87
[그림 4-6] 〈대구경북연구〉(좌), 〈인천학연구〉(우) ····· 89
[그림 5-1] 대전광역시 임상도 ····· 99
[그림 5-2] 대전광역시 법정보호종(포유류) 분포 현황 ····· 102
[그림 5-3] 대전광역시 산줄기 분포도 ····· 104
[그림 5-4] 세종시 토지이용현황도 및 수계도 ····· 105

[그림 5-5] 세종시 현존식생도 ····· 106
[그림 5-6] 세종시 서식 멸종위기야생생물 ····· 107
[그림 5-7] 세종시 야생생물보호구역 현황 ····· 107
[그림 5-8] 이야기가 있는 강원의 산, 강, 해안, 동물, 식물 ····· 108
[그림 5-9] 부여 및 대전의 지역학 연구 관련 저서 ····· 109
[그림 5-10] 위원회 운영의 예 ····· 110
[그림 5-11] 대전의 대표종 ····· 111
[그림 5-12] 세종의 새(파랑새), 꽃(복숭아꽃), 나무(소나무) ····· 111

DSI

서 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3. 연구방법과 체계

1장

1. 연구배경과 필요성

1) '연결사회'의 진입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쇠퇴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불어닥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온라인 미디어 기술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초국가적 경계 시대를 넘어 초연결사회로 거듭나게 되면서, 각 '지역'이 가지는 문화적 특수성·정체성의 중요성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세계화가 강화되면서 지역은 국가 역할의 축소와 함께 새로운 경쟁주체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지방의 고유성·특수성은 다양한 미디어와 연계되어 세계적인 것으로 거듭나면서 이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1)]

세계의 지역은 교통과 통신 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물리적으로 윤택함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모바일·PC 등 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세계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소통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된 것이다. 이같이 우리의 삶은 편리하고 윤택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세계화·국제화가 촉진한 초연결사회는 각 지역이 품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이 옅어지는 문화적 획일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가 촉발한 초연결사회는 문화적 특수성을 옅어지게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이 점차 쇠퇴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2) 지역소멸의 등장과 현실화

한국사회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도·농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인구의 감소가 발생하면서 지방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2)] 이 과정은 점차 가속화되어 최근에는 지방이 사라진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2014년 일본의 사회학자 마쓰다히로야는 『지방소멸』이라는

1) 최재헌(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8권 제2호, 2쪽 참조.
2) 문병효(2021),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대응방안-이른바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71호, 제21권 제3호, 243쪽 참조.

책을 통해 지역이 소멸한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2040년까지 896개 지역이 사라진다고 언급하였고, 출생률이 낮은 도쿄를 중심으로 극점사회가 형성되어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3] 이의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사회도 지방이 소멸된다는 다소 과격한 어휘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이 현상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더욱이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폭되고 있다. 2020년의 1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가장 낮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의 시도에서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세종지역학'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에서는 약 45% 남짓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에 따른 과밀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미비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통한 고도성장 이후, 안정적 경제발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소득·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사회 전반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역은 균형발전을 실

3) 박승현(2017),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의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일본비평』 제9권 제1호, 159쪽 참조.

천하는 기제로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건설되고 있으므로, 이를 도모하는 것은 필수 과제이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의 기제로서 대전·세종의 상생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효율성은 제고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과 세종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문적이며 정신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통의 정체성을 발굴하는 실천적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4) 왜 '대전세종지역학' 연구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왜 대전세종지역학 연구를 해야 하는지, 대전세종지역학이 함의하는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의 특수한 문화에 기반한 다양성을 촉진하는 기제로서 가치와 의미가 있다. 교통·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초연결사회의 도래는 문화 다양성을 쇠퇴하고, 몰개성화·획일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과 세종의 지역의 특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학 연구를 통해 구현되는 지역정체성은 문화 다양성을 촉진하는 기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지역학은 지역 및 공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학문이다.[4] 이는 하나의 분과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학은 소멸지역에 대한 기록화 작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매우 적절하다.[5]

셋째, 대전세종지역학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학문적·정신적 토대의 구현을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가 있다. 지난 세기 동안 교통의 요충지로서 정체성을 지녀왔던 대전시는 21세기 국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쇠퇴의 위기를 극복하고 첨단 과학도시로서 미래 발전을 위

4) 김학훈(2014), 「한국의 지역학 30년 :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제30권 제4호, 88쪽 참조.
5) 이재민 외(2020),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2020-53, 20쪽 참조

해 세종시와의 상생 협력이 절실하다. 세종시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의해 조성된 도시로서, 행정수도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전과 세종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학의 실천이 필요하다. 더욱이 대전과 세종은 물리적으로 경계에 위치하여, 교통·행정·문화 등 유사한 생활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과학도시의 대전·행정도시의 세종이 상생협력을 실천할 때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전과 세종·세종과 대전의 지역학은 국가균형 발전을 실천해야 하는 역할과 소임이 있어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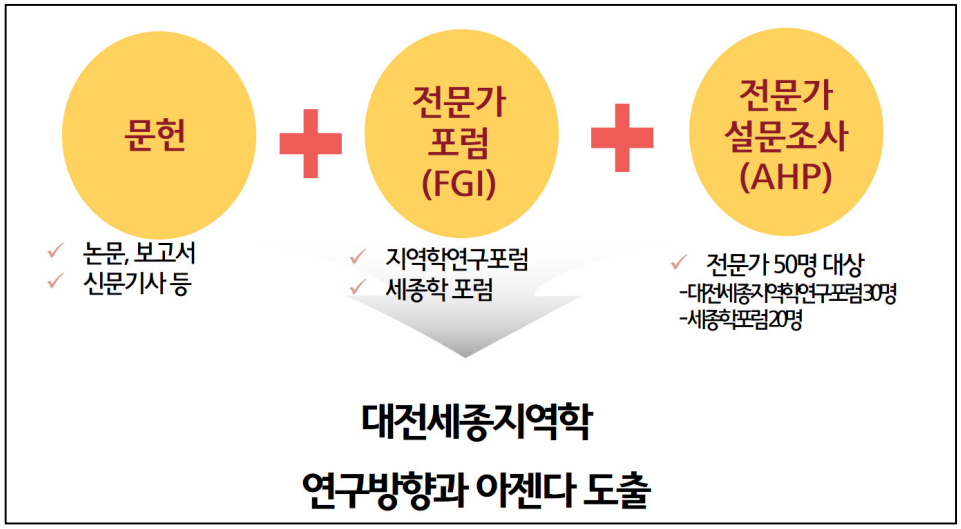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2021년 2월 지역학연구기관으로서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연구포럼 조직·연구총서 발간·세종학 포럼 등을 진행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의 연구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세부적으로는 대전과 세종의 상생을 위한 지역학 연구 방향설정과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연구방법은 문헌의 고찰과 함께 지역학 연구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AHP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앞으로의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의 방향성을 고찰하고, 도출된 아젠다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연구방법과 체계

1)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자료의 수집을 통해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와 설문조사 자료의 AHP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FGI와 AHP의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한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1] 연구방법

2) 연구체계

연구진들은 이 연구를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연구방법, 연구체계 등을 서술하였다.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통해 이 연구가 가지는 사회문화적의 당위성과 가치, 의미 등을 고찰하였다. 연구목적과 기대효과를 통해 연구의 주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자료, 전문가포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여 자료수집과 분석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체계를 설명함으로써 이 보고서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2장은 **'지역학 연구의 흐름과 대전과 세종의 지역학 동향분석'** 부분으로 새로운 융합학문으로서 지역학이 학문적 영역에서 가지는 개념과 가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이 연구의 공간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대전과 세종의 지역을 적용시킴으로써 대전학, 세종학의 여정과 흔적을 반추하고,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세종학, 대전·세종학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이해하고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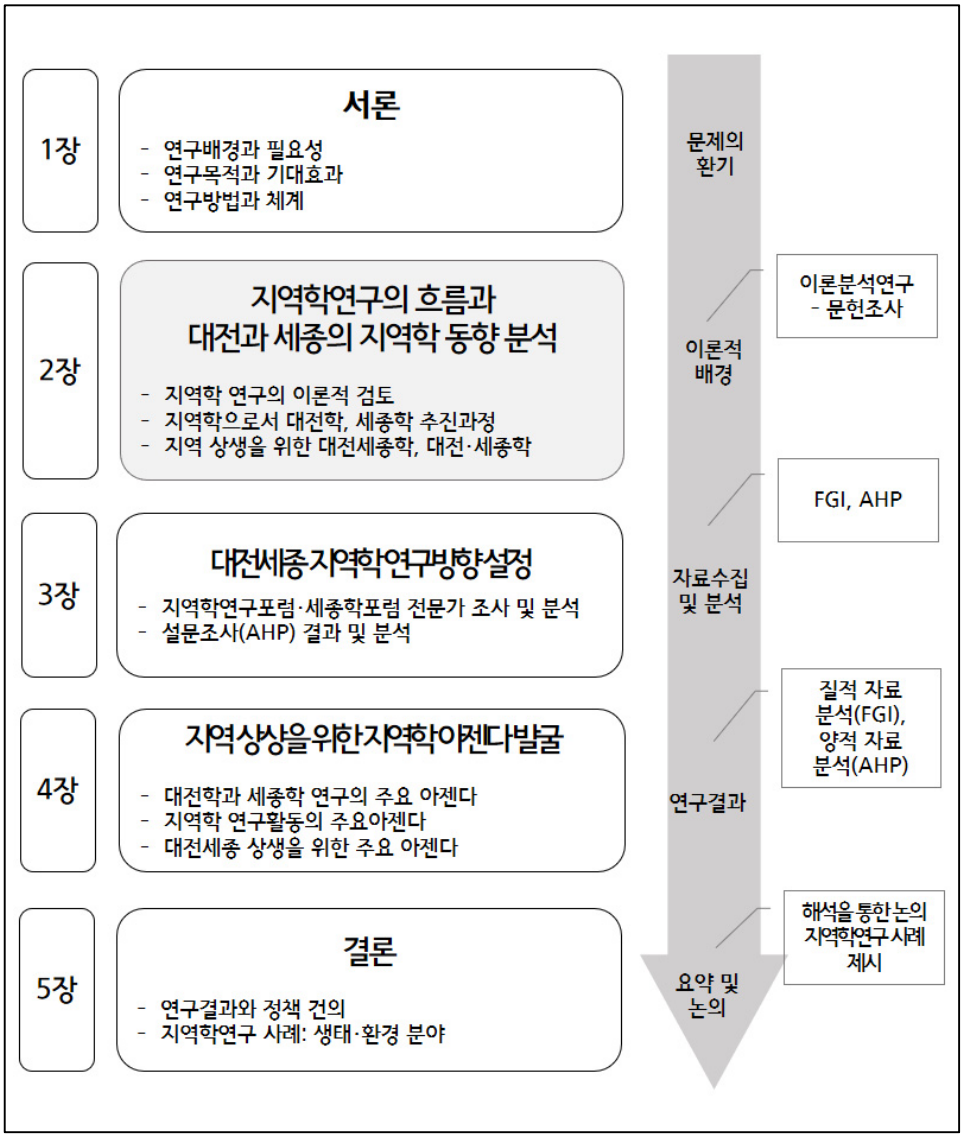
3장은 '**대전세종 지역학 연구방향 설정'**으로 전문가 설문 조사 개요와 결과 분석을 정리한 부분이다. 지역학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HP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우선순위(중요도)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4장은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 아젠다 발굴'** 부분으로 지역학연구포럼, 세종학 포럼 등에서 논의되었던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대전학과 세종학 연구의 주요 아젠다, 지역학 연구의 주요 아젠다,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의 주요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5장은 '**결론**' 부분으로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언급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였다. 그리고 정책적인 시급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학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

역학 연구 사례로 생태·환경 분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지역학의 학문적 관점을 통해 본 대전과 세종의 자연환경 현황을 분석하였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학 연구의 동향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서술한 연구체계를 다음 쪽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2] 연구체계

DSI

지역학 연구의 흐름과 대전과 세종의 지역학 동향 분석

1. 지역학 연구의 이론적 검토
2. 대전학·세종학의 탐구 과정과 특성
3. 지역 상생을 위한 대전세종학, 대전·세종학

2장

1. 지역학 연구의 이론적 검토

1) 지역학 연구의 전개와 흐름

(1) 세계 지역학의 전개와 흐름

세계 지역학은 세 갈래 정도로 그 흐름이 나타난다. 첫 번째 흐름은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구현된 지역학 연구의 형태이다. 세계 여러 나라 지역학의 초기형태는 다른 지역을 여행·탐방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여행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는 중국과 유럽,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5세기 무렵 현장법사가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법현의 『불국기(佛國記)』 등이 소개되었다. 유럽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의 부장 아울루스 히르티우스와 함께 『갈리아 전서』를 편찬했다. 그리고 우리에도 유명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초기 지역학 연구서로서 여행기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혜초가 당시 인도를 다녀온 이야기를 집필한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시초로 하여 조선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대한제국기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 민영환 특사 일행이 시베리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쓴 『해천추범(海天秋帆)』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흐름은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실천된 민족학(民族學)의 형태이다. 유럽의 주요 제국들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식민지 확보를 위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약소국을 침탈하였다. 그 결과로 스페인은 남미, 영국은 인도,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 열강은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인류학적이며 총체적 정보가 필요했는데, 지역학은 이러한 정보를 발굴·분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영국은 식민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에 민족학 강좌를 개설하여, 식민지역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6] 이후에도 식민지 통

6) 조원준(2006), 「지역학 접근에 관한 고찰」, 『일본어문학』 제 32집, 일본어문학회, 583쪽

치를 위한 언어교육을 강화했으며, 주로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연구로 확장시켰다.[7] 이 시기 영국의 지역학은 현재 주로 문화인류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민족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영국의 지역학은 민족학으로서 현재 사회인류학을 정립하는 데까지 도달하였다.

세 번째 흐름은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접근한 지역학을 들 수 있다. 20세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정치적·군사적 접근을 통해 주변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지역학을 활용하였다. 미국의 지역학은 1940년대 말 경제학자인 Water Isard가 지역경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그 결과로 1948년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학술대회에서 지역학 관련한 세션이 구성되면서 구체화 되기 시작하였다.[8]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지역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력 이후에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지역학은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출현되었지만, 학계와 교육계·언론계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확산시켜 나름의 학문적 토대[9]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현재에도 지역학의 기원과 발생, 개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국의 지역학이 현대 지역학의 방향설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2) 국내 지역학의 전개와 흐름

우리나라에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이후 나타난 산업화·도시화 등의 근대화와 관계 깊다.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에 따라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수도권과 특정 도시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도시는 인구과밀화 현상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농촌은 인구 유출에 따른 고령화 현상을 통한 겪으면서 많은 사회문제가 양산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외된 지

7) 하병주,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 Ⅰ」,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제1호, 249쪽.
8) 김학훈(2014)은 1940년대 말 미국의 지역경제에서 시작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후 의 실천적 활동이 지역학의 출발로 언급하였다.
9) 하병주, 위의 논문, 255쪽.

역은 문화적·경제적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특히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회의 공동체는 급속히 붕괴되는 현상을 맞이하였다. 이처럼 전통사회의 공동체는 해체와 소멸의 과정에 맞닥뜨렸으며, 인구의 과소화·고령화에 의한 공동체 해체를 넘어 이제는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10]

지역이 소멸된다는 것은 지역이 함의하는 정체성의 소멸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정체성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장소성은 퇴색되고, 몰개성화되면서 자연스레 지역문화는 위축되었고, 지역민의 삶은 점차 피폐해졌다. 지역정체성이 상실된 지역의 현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대표되는 회색빛의 획일화된 경관으로 대표되며, 이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비슷한 모습뿐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11]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990년대 출범한 지방자치제는 지역과 지역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의 작은 공간은 스토리텔링 기법의 적용을 통해 관광콘텐츠로 구현되었다. 그리고 지역 구성원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는 문화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성에 대한 회복과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질문해 볼 수밖에 없다.

지역이란 무엇이고, 지역성이란 무엇이며, 지역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지역정체성의 상실과 폐퇴가 켜켜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지역정체성을 구현하는 학문적·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역학이 등장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경계와 배경은 행정적 경계 단위를 가리키며, 그 결과로 경기학, 부산학, 인천학 등이 등장하였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목적으로 학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곧 지역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학은 1993년 서울학을 시작으로 활

10) 이재민(2020), 「공간생산이론을 통해 본 지역문화콘텐츠의 창출과정과 의미: 칠곡군 영오리 사례」, 글로벌문화콘텐츠 제7권 제1호, 2쪽 참조.
11) 한상헌 외(2019),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연구 2019-02, 11쪽 참조.

발하게 추진되어 현재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 지역학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있다.[12]

2) 지역학의 개념과 범주

지역학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역학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분과학문이기보다는 융합적·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학제적 연구이다. 임재해(2004)는 마을과 관련한 민속학 연구는 '옴살답게' 연구해야 함을 얘기하였고, 이의 관점은 지역학에서도 충분히 적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학이야 말로 지역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하나의 분과학문적 접근보다는 학제간연구를 통한 총체론적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3]

지금까지 지역학은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었다. 특히 지역학 혹은 지역연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역사/문화/사회적 공간단위로서 지방과 지역이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양자를 구분하자면 지방이 고정적, 실체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 지역은 비교적 가치중립적이며 지향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14]

일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연구는 지역이라는 보편적 현상을 중심주제로 삼아 성립되는 지역학(regional science)과 특정한 하나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구(area studies 혹은 regional studies)로 구분된다. 전자가 어느 지역에도 통용되는 일반 법칙의 정립을 목표로 하는 법칙정립적(nomothetic) 연구라면, 후자는 지역 특유의 문화와 세계관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역 간 차이나 특징을 찾기 위한 목적을 지닌 개성기술적(idiographic) 연구이다.[15]

12) 한상헌 외(2019), 앞의 보고서 참조.
13) 이재민 외(2020),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2020-53, 128쪽 참조.
14) 박진한·남상욱·이호상(2016), 「인천학의 현황과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공간정보기술의 활용과 디지털 인문지도의 구축」,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17권 제3호, 35쪽 참조.
15) 양기근(2006), 『경남학의 연구 동향과 정립방향에 관한 연구』, 『중점정책연구 기본연구』, 21쪽 참조.

지역학 관련 선행연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지역학의 개념

저자	정의
이윤갑 (2004)[16]	그 지역 주민의 삶의 방식과 질에 관한 문제에 기본적인 관심과 목적을 두고, 지역사회를 삶의 현장으로,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형성되고 동시에 그것을 조건 짓고 유지시키는 기본적 생활세계를 연구하는 것임
김경수 (2006)[17]	당해 지역이나 국가의 개별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특정 장소나 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학문임
양기근·강창민·양덕순 (2007)[18]	지역 특유의 문화와 세계관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역 간 차이나 지역의 특징을 찾기 위해 특정 지역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개성기술적(idioreaphic) 연구임
하병주(2007)[19]	가치 평가적 당위(sollen)에 근거한 접근이 아닌, 다분히 있는 그대로의 실상(sein) 파악에 주안점을 두는 개념이며, 이는 현지문화의 이해가 바탕이 됨
정해조(2007)[20]	모든 지역의 성립 또는 그 곳 인간의 생업에 관하여 어떤 지역의 전체 분석을 시도하는 학술 연구임
김영화·김태일(2012)[21]	각 지역의 역사적 이해를 토대로 지역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상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학문임
김학훈(2014)[22]	지역 및 공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학문이며, 관련된 분야는 경제학, 지리학, 도시계획학, 행정학, 사회학 등이 있음

16) 이윤갑(2004),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 지역학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東方漢文學』 제26권, 12쪽.
17) 김경수(2006)
, 「지역학의 정체성과 방향성」, 『世界地域研究論叢』 제24권 제1호, 9쪽.
18) 양기근·강창민·양덕순(2007), 「지역학의 연구동향과 정책적 과제: 경남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1권 제2호, 244쪽.
19) 하병주(2007),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Ⅰ」,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제1호, 266쪽.
20) 정해조(2007),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Ⅱ」,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제1호, 278쪽.
21) 김영화·김태일(2012), 「'대구경북학'의 모색: 다른 지역학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5권 제1호, 6쪽.
22) 김학훈(2014), 「한국의 지역학 30년: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제30권 제4호, 88쪽.

저자	정의
박진한·남상욱·이호상(2016)[23]	학문적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인문학, 자연과학 등의 순수학문과 달리 지역 현안과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실용학문의 측면을 가짐
김민영(2016)[24]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결국 국가의 정체성 탐구에 이르며, 주민에 대한 정체성 교육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전략에 핵심이 되어 양자가 상생하는 도구 학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
오영교(2019)[25]	지역을 구성하는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자연환경적 상황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이 다른 지역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주변성'을 극복할 토대를 공고히 다지려는 학문적 실천과정임
박충환(2020)[26]	특정 지역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학제적, 다학문적, 혹은 '융합적'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임

23) 박진한·남상욱·이호상(2016), 「인천학의 현황과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공간정보기술의 활용과 디지털 인문지도의 구축」,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17권 제3호, 52쪽.
24) 김민영(2016), 「항구도시의 지역학 발전과 '군산학(群山學)'의 활성화 방향」, 『韓國島嶼硏究』 제28권 제4호, 7쪽.
25) 오영교(2019),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 『韓國島嶼硏究』 제28권 제4호, 161-162쪽.
26) 박충환(2020), 「글로컬 문화지형과 지역학으로서 '영남학'의 위치」, 『嶺南學』 제73호, 31쪽.

2. 대전학·세종학의 탐구 과정과 특성

1) 미래발전을 위한 대전학[27)]

(1) 대전학 연구동향

① 기관·단체에서 진행했던 대전학 연구

대전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 중세·근세의 유교문화부터 근대 이후 대전역을 중심으로 창조된 도시의 정체성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한상헌 외(2019)는 대전학 연구를 "대전의 기억, 의식, 문화를 복원하는 데에서 시작"하며,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할 것을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대전학은 기관·단체, 대학연구소, 민간연구소에서 나름 진행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각 기관에서 진행한 대전학 연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2] 기관·단체에서 진행했던 대전학 연구

구분	내용
대전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 시사의 편찬과 발간 • 향토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 • 시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문화원 (중구, 유성구, 대덕구, 서구, 동구)	• 기초자치 단위 민속, 문화유산 조사·연구
대학연구소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 충청지역의 역사·철학·어학·문학 등 지방사 연구 • 학술지『충청문화연구』발간(연 2회) • 학술대회, 고문서 DB 등 정보화 사업
민간단체 (대전학연구회)	• 대전의 문화적 특수성 연구 • 기초 연구·사료 수집, 논문, 단행본 발간

* 자료 : 한상헌 외(2019), 85~104쪽 내용 요약을 통한 재구성

27) 이 절의 내용은 한상헌 외(2019)의 연구에 기초하여 작성함을 일러둠

(2) 전문연구자가 진행했던 대전학 연구의 범주

한상헌 외(2019)는 대전학을 다루었던 개인연구자들의 연구를 근대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해방이후/1990년대로 분류하였다. 먼저 일제강점기 연구는 대전이 도시로서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여서 대전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연구를 고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기의 연구는 식민도시로서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인 보편성과 특수성, 충남도청의 이전, 민족해방투쟁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해방 이후의 연구는 대전지역 내 격렬하게 펼쳐진 좌익과 우익의 대립, 모스크바 삼상회의 관련한 아젠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의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주요 도시로 거듭난 대전의 경제, 정치, 시민사회 등의 변화 양상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지역학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2-3] 전문 연구자가 진행했던 대전학 연구

시기	내용
일제강점기	식민도시의 보편성과 특수성
	충남도청 이전
	민족해방투쟁
해방 이후	대전지역 내 좌·우 대립의 양상, 모스크바 삼상회의 관련 정치활동, 조직과 인물
1990년대	도시기능 분담
	대전의 경제, 정치, 시민사회 등의 변화 양상
	대전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생활권 분화와 공간적 불평등

* 자료 : 한상헌 외(2019), 105~109쪽 내용 요약을 통한 재구성

2) 대전학 연구의 정책기조

(1) 대전학 연구의 기본방향

한상헌 외(2019)는 대전학 연구의 기본방향으로 ①“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조”해야 하며, ②“정책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풍부”해야하고, ③“주민 참여와 지역 간 상생을 위한”대전학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대전학은 대전에 숨어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현대적·창조적 활용기법을 통한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조해야 하고, 지역학의 실천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주민 의견의 충실한 반영과 지역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이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28)]

(2) 대전학 연구의 실천방향

한상헌 외(2019)는 대전학 연구의 실천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대전학은 “미래를 위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장소성과 공동체의 결속에 초점을 둔 지역사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는 “대전학 연구의 거점을 통한 체계화”가 필요하며,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전학의 시민확산과 대중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 확대의 토대가 되는 지역학”으로 활용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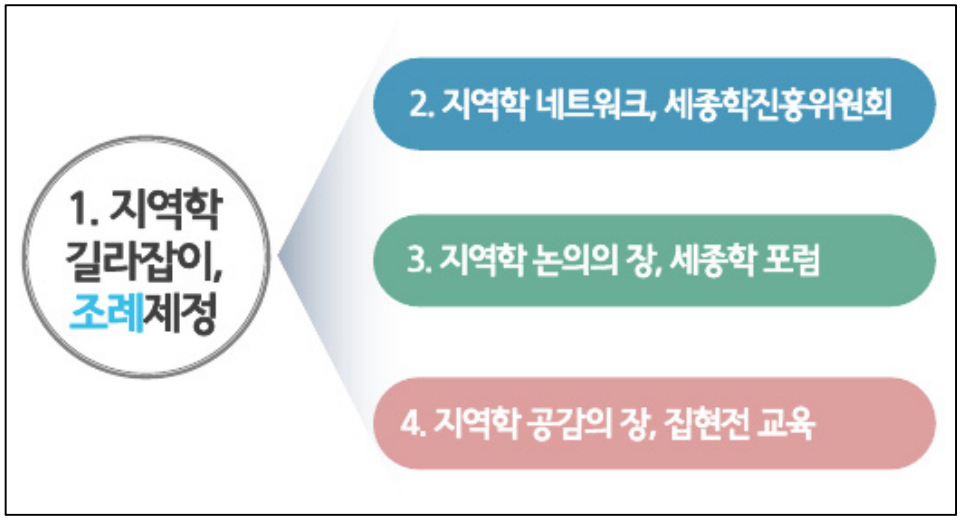
3) 지역 정체성 구현을 위한 ‘세종학’[30)]

(1) 세종학 추진 동향

세종시에서는 도시 정체성 구현하고자 다양한 지역학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세종시는 우선 2019년 1월 조례제정을 통해 행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였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학으로서 세종학을 실천하

28) 한상헌 외(2019), 앞의 보고서, 117-118쪽 참조.
29) 한상헌 외(2019), 앞의 보고서, 119-127쪽 참조.
30) 이 절의 내용은 이재민 외(2020)의 연구에 기초하여 작성함을 일러둠

기 위한 활동을 법제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역학 연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조례제정 이후 지역학 네트워크로서 세종학진흥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지역학 논의의 장으로서 세종학포럼의 실천, 지역학 공감의 장으로서 집현전 시민 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 2-1] 세종학 추진 현황

첫째는 지역학 실천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세종시 교육지원과 산하 세종학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세종학진흥위원회는 지역학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로서 연구자문의 플랫폼 역할과 함께 세종학 포럼의 기획과 운영, 지역학으로서 세종학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과 콘텐츠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활동하고 있다.

둘째는 지역학 논의의 장으로서 세종학 포럼이다. 세종학포럼은 2019년과 2021년에 2회차로 진행되었다. 1회차의 주제는 “새로운 실험의 무대 세종시, 삶의 장소로서 미래를 그리다”로 설정하여 세종시의 과거와 지역학의 방향, 미래 등을 주로 건축·경관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2회차의 주제는 “지역학의 의미와 세종학의 의의”라는 대주제 아래 세종시의 과거·현재·미래를 인문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 인식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카이브로서 자료가 축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2-2] 세종학 포럼 안내 리플렛

셋째는 지역학 시민 공감의 장으로서, 집현전 교육을 들 수 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두었으며, 여기에서는 정책아카데미, 학부모대학, 인문학 강좌를 비롯하여 연합교양대학 세종의 재발견이라는 지역학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대학인 고려대 세종캠퍼스·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연합하여 학점 교류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민대상 지역학 프로그램으로, 세종의 역사·문화·생태·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종시의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교육프로그램이다.



[그림 2-3] 세종연합교양대학 안내 리플렛

〈제2회 세종학 포럼〉

○ (일시장소) 2021.11.12.(금) 14:00~18:00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유튜브 병행송출)
○ (참　　석) 38명 (일반시민 및 학계, 공무원 등)
○ (공동주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① 기조강연

○ 지역학 연구의 가치와 의미, 향후 과제 제안(이익주 교수, 서울시립대)
- 세종시민의 화합
- 행정수도 완성
- 균형발전 선도를 비롯한 세종시 형성과 출범 의미 등 논의

② 주제발표 (세종시의 과거-현재-미래)

○ (과거) 세종 지역의 역사정 정체성과 흔적 (김민석 전임연구교수, 충남대)
- 근대 이후 세종지역의 역사적 특성

○ (현재) 도시학 차원의 세종의 생성과 형성과정 (최정우 교수, 목원대)
- 세종시 도시형성의 주요 설계 방향
  · 통합디자인(연속성·통일성·안정성)
  · 주요 장소의 특화계획(독창성·다양성·차별성) 조화

○ (미래) 세종시 문화비전 (안남일 교수, 고려대)
- 세종만의 특성을 담은 비전 도출과 문화 교류도시로서 활성화 필요

③ 종합 토론 (세종학의 연구방향과 지향점)

○ 도시 출범의 철학적 가치를 유지, 세종학 연구의 지역적 범위* 설정
-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관계성(현재) 및 세종만의 독자성·특수성(미래의 방향)

○ 세종 시민들의 다양성, 새로운 문화 변화성 → '지역 주체성' 만들기



기조발제(이익주)



기조발제(이익주. 유튜브 송출화면)



주제발표(김민석)



주제발표(최정우)



주제발표(안남일)



종합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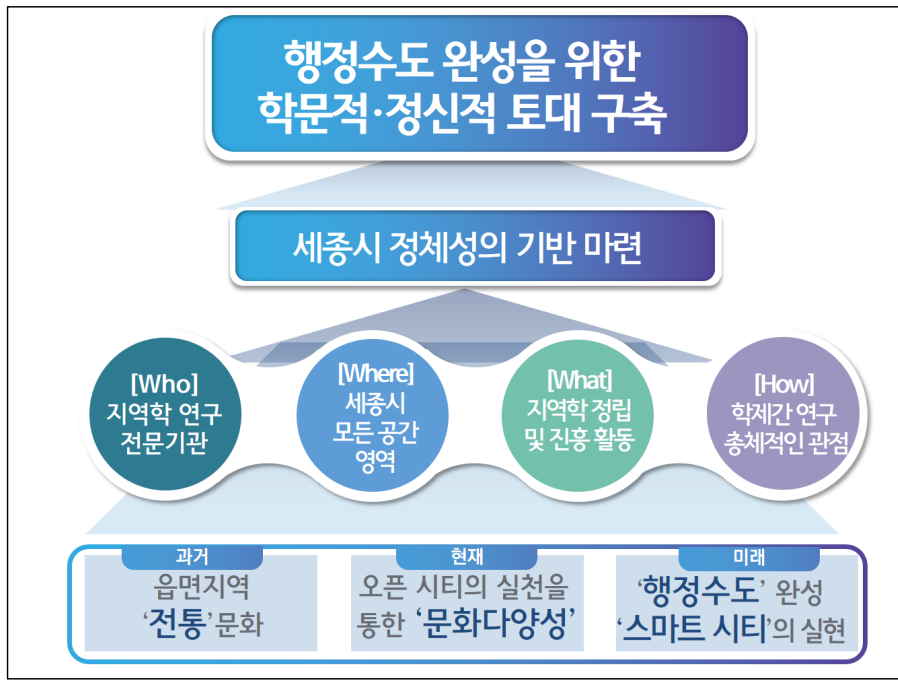
[그림 2-4] 세종학 포럼 현장 모습

(2) 세종학 연구의 비전과 기본방향

이재민 외(2020)는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연구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안하였다. 세종학 연구의 비전·목표를 제안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현재 세종시는 과거 연기군의 문화가 단절되고, 새롭게 형성된 도시이지만, 연기군

의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읍면지역의 '전통'문화를 소외시킬 수 없다는 맥락과 함께 현재 세종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문화다양성'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전제로 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미래 가치로서 행정수도의 완성과 스마트시티의 실현을 기본전제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사항을 전제한 맥락에서 비전·목표를 단계별로 제안하였는데, 첫 단계로서 "세종시 정체성의 기반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학문적·정신적 토대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지역학 거점기관으로서 전문기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세종시의 지역학은 행정복합도시의 신도시 권역이 아니라 읍면지역 모두를 포함할 때 지역학으로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고찰하였다. 그리고 지역학을 정립하고 진흥하기 위한 작은 실천부터 학제 간 연구의 총체적인 관점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얘기한 세종학 연구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5] 세종학 비전과 기본방향(이재민 외, 2020)

3. 지역 상생을 위한 대전세종학, 대전·세종학

1)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의 설립과 고민

앞에서도 밝혔듯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학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원, 국립대 등에 지역학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운영방식은 출연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원 내에 연구기관을 갖추는 경우가 많지만, 센터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특별사업비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곳도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설립 훨씬 전, 대전발전연구원 시절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학에 관한 고민을 하였다. 박노동(2014)은 대전의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과 과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의식의 조사를 통해 지역정체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전략과제를 제안하였다.[31]

김기희 외(2015a, 2015b)는 두 차례의 연구를 통해 대전 도시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김기희 외(2015a)의 1차년도 연구는 지역정체성 연구를 위해 지역의 제도화 모형을 적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단순한 이미지 발굴이 아닌 시민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32] 이들의 2차년도 연구(2015b)에서는 대전의 산업구조·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 각인·문화정체성과 여가·정치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수행되었다.[33]

이후 도시정체성 재정립에 관한 연구는 한상헌 외(2016, 2017)에 의해 주차례 수행되었다. 한상헌 외(2016)는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를 위해 정체성 인식을 도출하고자 대전 내 동 지역을 권역화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흥동·선화동·은행동, 대동·자양동·신인동, 궁동·어은

31) 박노동(2014),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과 과제』, 기본연구보고서 2014-04.
32) 김기희 외(2015a),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Ⅰ)』, 정책연구보고서 2015-34.
33) 김기희 외(2015b),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Ⅱ)』, 정책연구보고서 2015-77.

동·신성동 지역으로 권역화하여 지역민들이 인식하는 도시정체성의 수준을 도출하였다.[34] 2회차의 연구에서는 도마동·정림동·가수원동, 둔산 3동·탄반동·갈마동, 오정동·대화동·읍내동으로 분류하여 지역민이 인식하는 도시정체성을 도출하였다.[35] 이처럼 대전에 관한 도시정체성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관한 아카이브를 축적하였다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2-4]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행했던 대전 지역정체성과 관련한 연구과제

연구자(년도)	주요 내용
박노동(2014)	•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과 과제 - 대전 정체성의 특징 - 국외 및 국내 도시의 정체성 확립사례 - 지역정체성 시민의식 조사 분석 - 지역정체성 확립의 정책방향과 과제
김기희 외(2015)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 (Ⅰ) - 대전의 영토적·상징적·제도적 형상의 발전과정 - 대전의 정체성과 지역의식 연구
김기희 외(2015)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 (Ⅱ) - 대전의 산업구조조의 변화 특성 - 과학도시 대전의 지역 착근화 - 대전의 문화정체성 연구를 위한 시론 - 대전시민의 여가문화 활동의 특성 - 대전시민의 정치문화 -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전의 이미지 - 대전의 대표종 진단 및 정책제언
한상헌 외(2016)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 (Ⅲ) - 지역민의 도시정체성 인식 수준 ※ 대흥동·선화동·은행동 / 대동·자양동·신인동 궁동·어은동·신성동
한상헌 외(2017)	•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 4 - 지역민의 도시정체성 인식 수준 ※ 도마동·정림동·가수원동 / 둔산 3동·탄방동·갈마동 오정동·대화동·읍내동

34) 한상헌 외(2016),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정체성 인식에 관한 지역별 사례조사』, 정책연구보고서 2016-27.
35) 한상헌 외(2017), 『도시정체성 재정립연구 4-정체성 인식에 관한 사례조사』, 정책연구 2017-17.

이 연구의 성과로 대전세종연구원 내에서는 지역학 전문거점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설립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는 한국지역학포럼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지역 경험을 청취하고 대전학과 세종학 연구센터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공유하였다. 2018년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직접 민선 7기 정책설명회에서 대전세종연구원 내 지역학 전문 연구를 위한 '대전학연구센터'의 설치를 약속하기도 하였다.[36]

이후에도 대전을 중심으로 지역학연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2018년 11월에는 대전시 정책기획관실 주최로 열린 『대전미래 100년을 위한 시민 심포지엄』에서 '대전학 연구센터의 설립 필요성'이라는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2019년 대전세종연구원 주최 학술행사인 『대전세종정책엑스포』에서는 대전학 연구세션을 별도로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다양한 학술행사에서 지역학 연구센터의 필요성과 지역학 연구방향 등은 수시로 논의되었다.[37] 그리고 한상헌 외(2019)는 대전세종연구원 기획과제 형식으로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센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대전시에서는 2021년 6월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성칠 의원 발의)』가 제정되었다.

세종시에서도 지역학 연구는 2019년 1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윤형권 의원 발의)』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례 제정 이후 '세종학진흥위원회' 구성, '세종학 포럼' 개최, 시민 대상 평생교육 콘텐츠로서 '세종의 재발견'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9년 10월 이춘희 세종시장은 제256회 정례브리핑에서 도시정체성 구현을 위해 '세종학 진흥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브리핑에서는 그간의 성과와 함께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운영 방향 및 과제 발굴에 대해 언급하였다.[38] 이 같은 맥락에서

36) 허태정 "대전을 문화융성 도시로" 비전제시, 디트뉴스24 2018.10.31.기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199(2021.12.19 검색)
37) 2019년 9월 9일, 11월 14일에는 대전시의회 주관으로 펼쳐진 정책토론회에서 지역학 연구의 방향성과 지역학연구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38) 세종시, '세종학 진흥'통해 도시정체성 확보, 뉴스티앤티 2019.10.10.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31 (2022.02.09. 검색)

이재민 외(2020)는 대전세종연구원 정책과제 형식으로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학 연구기관의 필요성은 물론 세종학의 의미와 가치, 기본 구상 및 방향을 제안하여 세종학 추진에 있어서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이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5] 대전세종지역학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 (○ 대전, ● 세종)

년도	주요 활동
2016년	○ 한국지역학포럼 참가 - 다른 지역 사례 청취 및 지역학연구센터 필요성 확산
2018년	○ 허태정 대전시장 민선 7기 정책발표회 - 대전학연구센터의 설치 약속 ○ 『대전미래 100년을 위한 시민 심포지엄』 개최(정책기획관실 주관) - '대전학 연구센터의 설립 필요성' 발제
2019년	○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엑스포 '지역학 연구세션' 별도 구성 ○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학 활성환 방안 연구』 (한상헌 외) 정책연구 수행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윤형권 의원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진흥위원회 구성, 세종학 포럼(1회차) 진행, 시민 교양교육 프로그램 진행 ● 이춘희 세종시장 제256회 정례브리핑 - 세종학 진흥계획 발표
2020년	●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재민 외) 정책연구 수행
2021년	○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성칠 부의장 발의)

대전과 세종에서 진행되었던 그간의 노력, 고민과 실천은 대전세종연구원 내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는 대전과 세종, 세종과 대전의 지역학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쌓아가는 거점기관으로 2021년 2월 개소되었다.

지역학연구센터가 개소될 무렵 '명칭'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연구센터 명칭에 관한 고민은 향후 연구의 영역과 지역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대전세종학연구센터, 대전·세종학연구센터, 대전세종지역학연

구센터,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등이 논의되었으며, '지역'과 '학' 명칭, 가운데 점(·)의 활용 여부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큰 고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운데 점(·)과 '지역', '학'이라는 명칭이 가진 연구의 범위와 개념은 매우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수차례 논의하였고, 그 결과로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로 결론 지었다. 먼저 가운데 점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대전과 세종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비추어질 수 있지만, '지역'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면서 대전과 세종 각각의 특수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세종학'이 아닌 '대전세종지역학'으로 설정함에 따라 '대전학'과 '세종학'을 아우를 수 있으며, 공생의 관점에서 '대전세종학', 상생의 관점에서 '대전·세종학'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겠다.

대전과 세종, 세종과 대전의 지역학 거점기관으로서 명칭을 정한 후, 2021년 2월 센터장(한상헌 책임연구위원)을 임명하였고, 다음 달 부서개편을 통해 지역학연구팀(이재민 연구위원), 대외협력팀(이은재 책임연구위원)을 신설하여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실무 인력(김지영 전문연구원)도 함께 채용하였다. 2021년 6월 대전세종지역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학 연구포럼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총 30명을 위촉하였다. 연구포럼 내에는 지역학 연구분과·대전세종학회 추진 분과·대외협력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대전세종정책엑스포의 지역학연구세션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지역학과 관련한 전문적인 식견을 소통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11월에는 세종학포럼 2회차 행사를 진행하여 세종학의 연구의 방향과 세종학의 의미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 세종학의 과거·현재·미래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기획총서(20세기 대전의 리더스피릿 I) 발간을 앞두고 있으며, 센터 구성원들이 세종학진흥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학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의 활동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6]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의 설립 이후의 활동

시기	내용
지역학 연구포럼 조직 운영 (2021.6.9.~ 현재)	• 대전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학계의 지역학 연구 전문가와 민간 영역에서 지역학 관련 활동을 지속해온 전문가를 대전세종지역학연구포럼 위원으로 위촉(총 30명) • 지역학 연구 분과, 대전세종학회 추진 분과, 대외 협력 분과로 구성하여 분과별 정기 회의와 수시 TF회의 개최 - 운영회의(7.13), 지역학연구분과(7.15), 대전세종학회 추진 분과(7.23), 대외협력분과(9.13) 등
대전세종정책엑스포 지역학연구 세션 (2021.9.16.)	• “대전·세종 지역학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지역학 연구 세션을 기획하여 발표에 참여하고, 타시도 지역학 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세종학포럼 개최 (2021.11.12.)	• 2019년에 이은 제2회 세종학포럼 개최를 위해 행사 기획과 진행을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에서 전담하고, 토론에 참여
지역학 기획총서 발간 준비 (2021.7.1.~ 현재)	• 다양한 영역에서 대전-세종의 특성을 탐구하여 지역정체성을 새로이 구현하는 특별 기획 연구서로서 제1권인 『20세기 대전의 리더스피릿』출간 준비중(2021년 12월 원고집필 완료 후 2022년 2월 발간 예정)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참여 (2021.1.~ 현재)	• 지역학연구센터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대전시의회의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협력 활동의 결과로 2021년 6월 21일 조례 제정의 성과를 거둠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세종학진흥위원회 1기, 2기 활동에 참여

2) 공생의 대전세종학, 상생의 대전·세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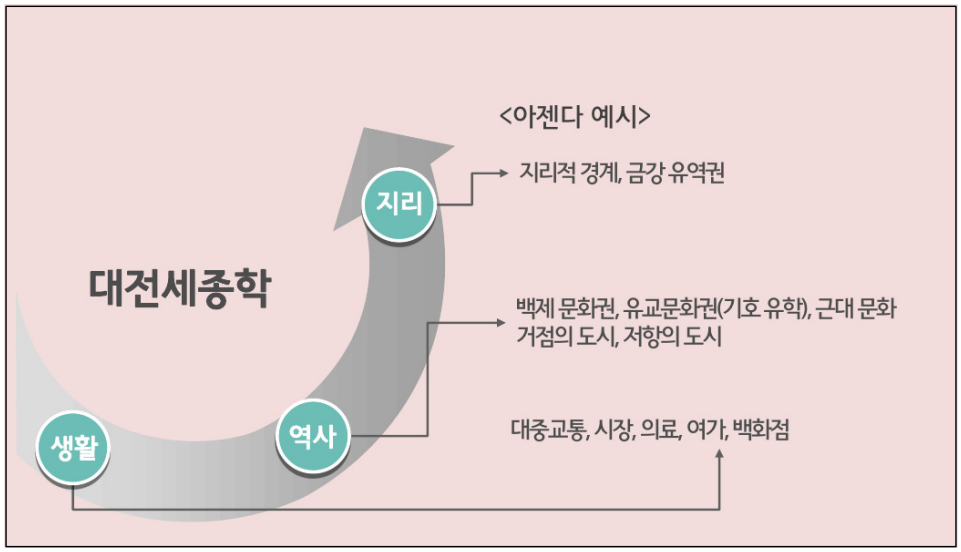
(1) 공생의 대전세종학

공생(共生)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도우며 함께 삶”, 즉 “각기 다른 두 종(種)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한다. 공생이라는 관점을 대전과 세종에 접목하면 **[대전+세종=대전세종]**이 되는 것이다. 즉, 공생이라는 관점의 접근은 대전과 세종에 있어서 지역의 통합적 접근을 의미한다. 대전과 세종의 차이점을 인정하기보다는 화학적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지역으로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학문적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대전세종학’을 의미한다.



[그림 2-6] 공생의 관점으로 바라본 대전과 세종

대전과 세종은 물리적으로도 접경하고 있는 인접지역으로, 생활권·지리권·역사권역의 접근에서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과 세종을 관통하는 금강의 물줄기를 에워싸는 문화와 역사, 생태와 환경, 역사적으로는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부터 유교문화의 한 축을 이어온 기호학파의 흐름과 흔적, 근대문화 거점과 과학 중심 지식도시에서 행정수도로서 정체성을 연구의 아젠다로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 생활권역 관점에서는 대전과 세종을 잇는 대중교통, 시장, 의료, 여가, 백화점과 유통 등을 연구의 아젠다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7] 공생의 관점으로 바라본 대전세종학의 연구 아젠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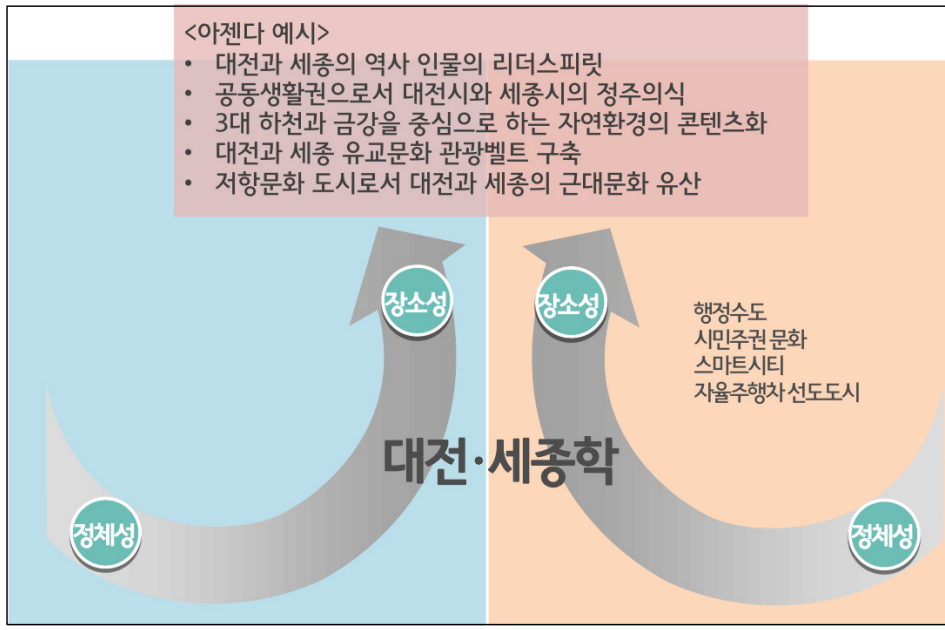
(2) 상생의 대전·세종학

상생(相生)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상생이라는 관점을 대전과 세종에 접목하면 **[대전+세종=대전·세종]**이 되는 것이다. 즉, 상생이라는 관점은 대전과 세종의 차이점은 인정하면서 문화적 특수성은 유지한 채 물리적 결합을 통해 지역의 상호협력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대전과 세종의 통합적 접근이 아니라, 과학도시이자 지식도시의 대전, 미래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의 문화적 특수성과 관련한 ‘대전·세종학’을 의미한다.



[그림 2-8] 상생의 관점으로 바라본 대전과 세종

2021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대전과 세종은 대한민국에서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자치단체의 도시가 최초로 접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대전시는 과학도시이자 지식도시로서 정체성과 함께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미래 행정수도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도시가 완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 따라서 대전·세종학의 연구 아젠다는 이들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전·세종학의 연구 아젠다는 대전과 세종의 각 지역에서 배출한 인물에 관한 내용, 유교문화 관광벨트, 문화유산 등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림 2-9] 상생의 관점으로 바라본 대전+세종학의 연구 아젠다 예시

DSI

대전세종지역학 연구의 방향 인식

1. AHP 설문을 통한 지역학 전문가의 인식 조사
2. 지역학 연구·활동의 중요도 인식

3장

1. AHP 설문을 통한 지역학 전문가의 인식 조사

1) AHP 설문의 특성과 조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역학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AHP 설문과 연구자문을 실시하여 지역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AHP 설문은 대전세종 지역학 연구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학 연구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들 간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 AHP 기법은 어떤 분야와 정책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조사방법이다.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은 다수의 대안에 대하여 다면적인 평가기준과 다수 주체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해 설계된 방법이다. AHP는 어떠한 분야든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문제에는 적용이 가능한 범용적 모델이다. 특히, 다수평가자의 다양한 판단을 합의나 수치적 통합을 통해 각 대안의 종합된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그룹의사결정에 적합하다. AHP는 의사결정자의 직관적,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또한, AHP는 평가자들의 판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료: 조근태(2003)

❒ 다만 AHP 설문 결과를 지역학 아젠다의 우선 순위 설정에 그대로 적용하여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는 것은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본 조사의 결과가 갖는 의의는 앞으로도 지역학 연구와 활동의 주체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될 지역학 전문가들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이는 현재 대전세종 지역학에 대한 기대 수준과 니즈를 반영함과 동시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지역학 연구의 전국적 혹은 전세계적 흐름에 추어 대전세종 지역의 간극이나 한계를 드러내주는 것일 수도 있다.

2) AHP 조사의 방법과 대상

(1) AHP 응답 대상 선정

❒ AHP 조사 분석의 일반적 방식에 따라 위계모형을 구성하였고, 구성된 위계모형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AHP 분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으로 대전세종지역학연구포럼 위원과 세종학진흥위원회 위원 등 지역학 관련 전문가 50인을 1차로 선정하였다.

- 그 중 답변 신뢰성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답변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21명의 답변을 유효 응답으로 분석하였다.

[표 3-1] 전문가 AHP 설문조사 답변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병수	대전학연구회 공동대표 / 충남대 대외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태명	대전학연구회 공동대표 / 전 한남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김학훈	청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전 한국지역학회 회장
김현정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김형준	전 부산학연구센터장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박정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영식	충남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안여종	대전문화유산 '울림' 대표

성 명	소속 및 직위
우희창	충청언론학회 부회장 / 시민미디어마당 대표
윤은혜	전의향교 총무장의
이석봉	대덕넷 대표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이용원	월간 '토마토' 대표
이토 마사히코	우송정보대 외식조리학부 교수
장인식	우송정보대 호텔관광과 교수
정선기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정용환	한국원자력연구원 / '벽돌한장' 대표
조성남	대전역사문화연구원장 / 전 중구문화원장
조영훈	공주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 공주학연구원
조윤재	고려대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소장
홍석하	지방분권 세종회의 운영위원장

(2) 설문 문항 선정

❒ AHP 설문 문항은 우선 "지역학 대상과 범주"를 설정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지역학 대상과 범주는 연구 범위, 가치 지향, 연구 목표, 활동 주체의 네 가지를 각각 구분하여 쌍대비교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① 연구 범위

- 지역학 연구의 범위는 지역학의 탄생 배경부터 지역학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핵심적 요소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학의 융성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은 광역행정체계에 근거하여 '특광역시 단위 대지역 중심'으로 지리적 대상을 삼을 소지가 다분하다.
- 하지만 본래적 의미로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볼 때 지역민이 오랜 기간을 영위해온 실제 터전은 반드시 행정체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모호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생활권 단위로 지역학을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오

히려 기초생활권으로 세분화하여 '읍면동 단위 소지역 중심'을 지리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② 가치 지향

- 대전세종 지역학은 현재 국내에서 비슷한 유형을 찾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대전과 세종 지역이 '대구경북학', '남도학', '충청학'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정서적으로 공통의 생활권이라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종시는 수도권집중화 해소와 지방분권이라는 특수목적성을 지니고 21세기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도시이며, 지리적 모태가 되는 곳은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충청북도 청원군에 오히려 더 친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시는 세종시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상생 발전하고자 하는 미래비전을 지니고 있으며, 세종시도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배후도시로서 대전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대전세종 지역학 연구의 가치 지향은 무조건 '대전시와 세종시의 개별적 고유성 탐구'라는 역사적 정체성 확립으로 기울어도 바람직하지 않고, '대전세종의 통합적 미래정체성 모색'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으로서만 지역학을 바라보기에도 도구화의 위험이 따른다.

③ 연구 목표

- 앞서 언급한 가치지향의 문제는 곧바로 지역학 연구의 목표와 연결된다.
- 대전시와 세종시 각각의 지역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인문가치 발굴·확산'이라는 학술적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전세종의 통합적 미래정체성 모색'이라는 가치 지향은 '정책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지역의 현안에 대응하는 실용적 태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④ 활동 주체

-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 지역학의 주요 주체에 관한 부분이다.
- 지역학을 독립적 학술분과로 바라보면 전문적·이론적 연구를 지향하는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역학의 융합적 특성과 연구과정적 특성을 강조하면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중시하면서 현실적·대중적 모색을 지향하게 된다.
- 분명 지역학은 학술적 성격을 간과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분야를 융합하고 분과 학문에 다시 영향을 주는 다양성과 실용성을 지니고 있어 활동 주체의 범위는 쉽게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대상과 범주	⋘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						대상과 범주
연구 범위	대지역 중심 (특광역시 단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지역 중심 (읍면동 단위)
가치 지향	대전시와 세종시의 개별적 고유성 탐구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전세종의 통합적 미래정체성 모색
연구 목표	인문가치 발굴·확산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책적 문제 해결
활동 주체	전문 연구자 중심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민의 적극적 참여

❒ 다음으로 지역학 연구 활동을 '연구결과물 도출', '공식적 학술 활동', '상시적 연구 활동', '교육 사업', '홍보와 네트워킹'의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 간에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질문하였다.

- 연구결과물 도출 : 연구보고서 발간, 총서(단행본) 출간, 아카이빙 DB 구축과 같이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을 도출하고 축적하는 활동이다.
- 공식적 학술 활동 : 대전세종학회 운영, 지역학 학술지 발간 등 안정적으로 구축된 연구 활동을 일컬으며, 이러한 기반에 의거하여 특별히 기획된 학술 대회 개최(심포지움 등) 등도 포함된다.
- 상시적 연구 활동 : 콜로키움(공부 모임), 지역 현장 탐방 등 좀 더 일상적이고 지역 밀착형인 활동들이며, 지역민 인식 조사 등 기초 조

사도 해당된다.

- 교육 사업 : 어린이·청소년용 지역학 교재 보급, 대학 지역학 과목 신설, 시민 교양 강좌 운영 등 지역학을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고 확산하는 활동이다.
- 홍보와 네트워킹 : 현안 브리프 발간, 언론 기고, 기관 간 협약 활동 등 지역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알리는 작업이다.

연구결과물 도출	연구보고서 발간, 총서(단행본) 출간, 아카이빙과 DB 구축
공식적 학술 활동	대전세종학회 운영, 지역학 학술지 발간, 학술 대회 개최(심포지움 등)
상시적 연구 활동	콜로키움(공부 모임), 지역 현장 탐방, 지역민 인식 조사
교육 사업	어린이·청소년용 지역학 교재 보급, 대학에 지역학 과목 신설, 시민 교양 강좌 운영
홍보와 네트워킹	현안 브리프 배포, 언론 매체 기고, 기관 간 협약

❒ AHP 설문에서 다섯 가지 유형의 활동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기입하도록 아래와 같은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활동 유형	⟪⟪⟪⟪⟪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						활동 유형
1	연구결과물 도출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공식적 학술 활동
2	연구결과물 도출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상시적 연구 활동
3	연구결과물 도출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교육 사업
4	연구결과물 도출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홍보와 네트워킹
5	공식적 학술 활동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상시적 연구 활동
6	공식적 학술 활동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교육 사업
7	공식적 학술 활동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홍보와 네트워킹
8	상시적 연구 활동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교육 사업
9	상시적 연구 활동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홍보와 네트워킹
10	교육 사업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홍보와 네트워킹

❒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유형의 지역학 연구 활동에 대하여 각각의 활동별로 하위 범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세부 활동들 간의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다음과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 설문의 결과는 대전세종

지역학연구센터의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일정한 참고가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활동 유형	⟪⟪⟪⟪⟪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						활동 유형
1	연구보고서 발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서(단행본) 출간
2	연구보고서 발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카이빙과 DB 구축
3	총서(단행본) 출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카이빙과 DB 구축

	활동 유형	⟪⟪⟪⟪⟪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						활동 유형
1	대전세종학회 운영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역학 학술지 발간
2	대전세종학회 운영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학술 대회 개최
3	지역학 학술지 발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학술 대회 개최

	활동 유형	⟪⟪⟪⟪⟪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						활동 유형
1	콜로키움(공부 모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역 현장 탐방
2	콜로키움(공부 모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역민 인식 조사
3	지역 현장 탐방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역민 인식 조사

	활동 유형	⟪⟪⟪⟪⟪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						활동 유형
1	어린이·청소년 교재 보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학 지역학 과목 신설
2	어린이·청소년 교재 보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민 교양 강좌 운영
3	대학 지역학 과목 신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민 교양 강좌 운영

	활동 유형	⟪⟪⟪⟪⟪ A가 더 중요						=	B가 더 중요 ⟫⟫⟫⟫⟫						활동 유형
1	현안 브리프 배포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언론 매체 기고
2	현안 브리프 배포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관 간 협약
3	언론 매체 기고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관 간 협약

2. 지역학 연구·활동의 중요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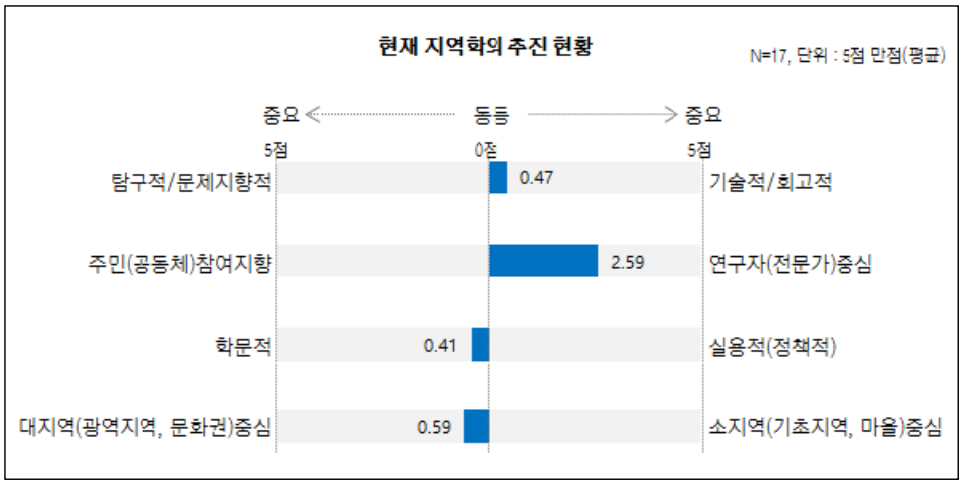
1) 지역학 대상과 범주 중요성에 관한 쌍대 비교

❒ 본 연구를 위해 노영순·이상열(2018)의 연구에서 수행한 전국 지역학 관련 기관 및 단체 대상 서면 인식조사 설문지 중 지역학 연구의 지향성에 대한 항목을 참조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노영순·이상열(2018)의 선행 조사 결과(이하 '선행 조사'로 표기)와 대비하여 대전세종 지역의 인식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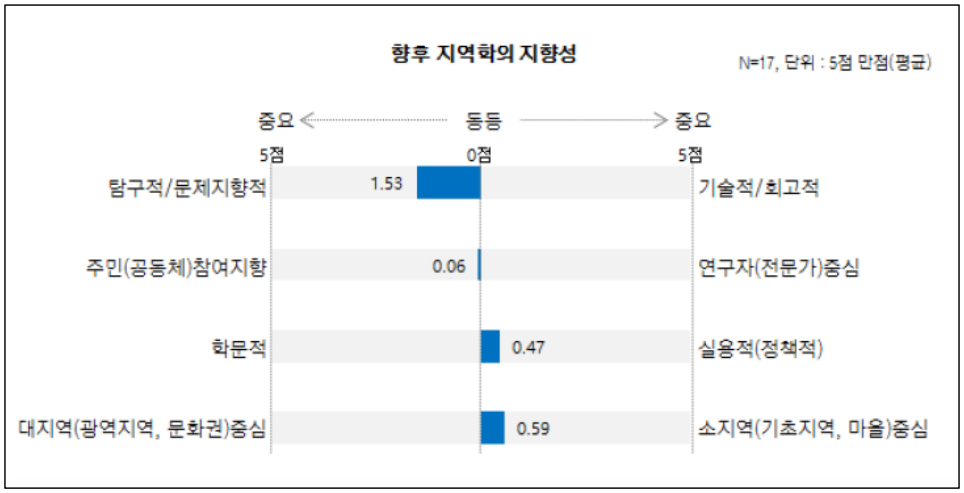
❒ 선행 조사에서는 지역학 연구의 '현재' 경향성을 판단하고, 향후 지향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하였는데, 거의 모든 질문에서 현재의 경향성과 향후 지향성이 정반대의 방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재 기술적/회고적인 지역학은 탐구적/문제지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 현재의 지역학은 연구자(전문가)중심인데, 앞으로 주민(공동체) 참여를 더 높여야 한다.
- 현재 학문적인 지역학의 경향성은 앞으로 실용적(정책적) 경향을 더 강화해야 한다.
- 현재 지역학은 대지역(광역지역, 문화권) 중심이 강하지만, 앞으로 소지역(기초지역, 마을) 중심의 지역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림 3-1] 현재 지역학 추진에 대한 평가

자료: 노영순, 이상열(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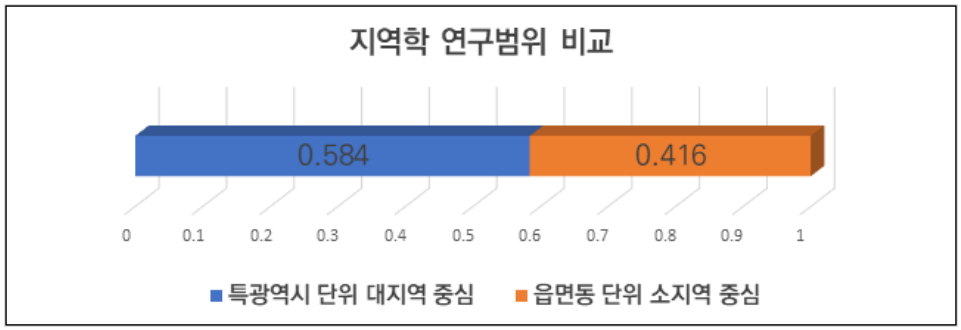


[그림 3-2] 향후 지역학의 지향성

자료: 노영순, 이상열(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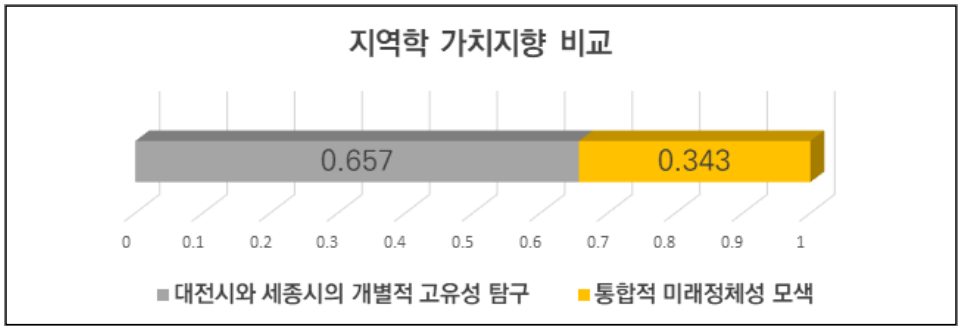
❒ 그런데 본 연구의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지역학 연구의 지역적 범위에 관해서는 '특광역시 단위 대지역 중심(0.584)'의 연구가 '읍면동 단위 소지역 중심(0.416)'보다 더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 선행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이는 대전과 세종 모두 광역 도 단위와는 다른 '도시정체성'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대전시 내에서도 각 자치구별 경제적·역사적·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세종시 내의 '읍면 지역'과 '신도시' 지역 간의 정체성 차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세종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우선 확립하는 것이 선결되는 것이 현안 과제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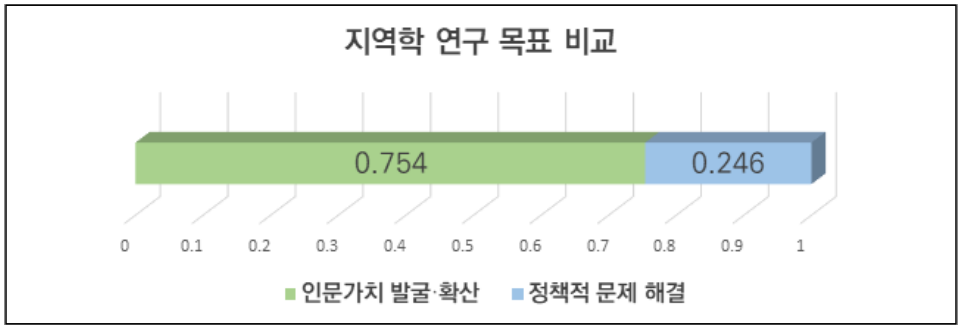
❒ 지역학의 가치 지향에 관해서는 '대전시와 세종시의 개별적 고유성 탐구(0.657)'가 '통합적 미래정체성 모색(0.343)'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 이러한 결과를 대전과 세종의 상생이나 공생을 반대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응답자에 대한 개별 면담을 통해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 대전학과 세종학의 가시적 성과와 필요성의 제기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지역학 전문가들은 일차적으로 대전학과 세종학의 독자성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바라는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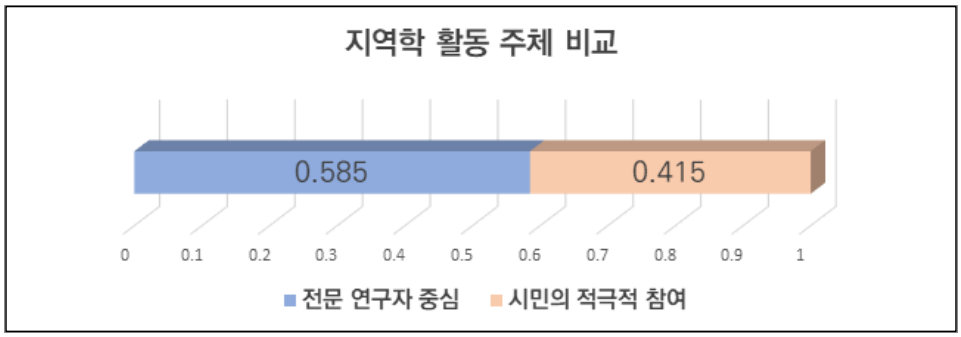
❒ 지역학 연구의 목표에 관해서도 '인문가치 발굴·확산(0.754)'이 '정책적 문제 해결(0.246)' 두 배 이상 높아, 선행 조사와 매우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 이러한 결과도 다층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은데, 우선 본 설문의 응답 대상자가 인문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 또한 앞서 '대전시와 세종시의 개별적 고유성 탐구'를 필요로 하는 의견과 비슷한 맥락에서 역사, 철학 등 인문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지역학의 활동 주체의 경우 '전문 연구자 중심(0.585)'의 연구 활동이 '시민의 적극적 참여(0.415)'를 통한 연구 활동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 본 조사의 응답자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 연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 다만 그 격차가 크지는 않아서 지역학 연구와 활동이 일반 시민에게 더 확산되고 대중적으로 공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증해준다.



2) 지역학 연구 활동별 중요도 인식[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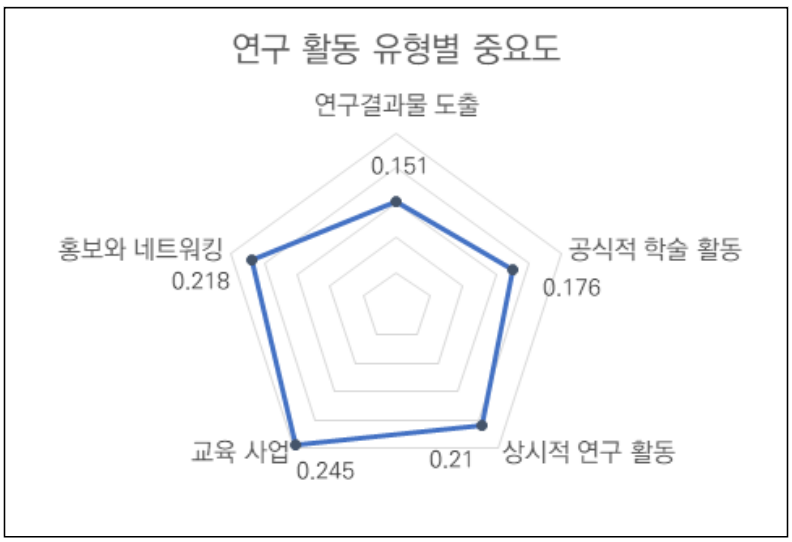
(1) 연구 활동 유형별 중요도 분석결과

❒ '연구결과물 도출', '공식적 학술 활동', '상시적 연구 활동', '교육 사업', '홍보와 네트워킹'의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 연구 활동 유형에

39) AHP 기법에서는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사용한다.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CR)은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을 배제하고 주어진 비교행렬만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전문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비교행렬의 일관성 정도를 나타낸다. 일관성 비율은 임계치 값 0.1을 사용하여, 0.1보다 작아야만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조근태, (2003). 김성철·어하준(1994)에 따르면, 일관성과 전문성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는 없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일관성 또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비교행렬은 신뢰도가 적은 자료로 판단한다. 그런데 각 전문가가 계층구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응답하므로 동일인의 응답자료라도 CR의 값이 응답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일관성 비율이 작다고 해서 좋은 자료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관성 비율이 작은 것은 쌍대비교에서 일관성있게 응답을 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그 자료와 전문가가 얼마나 정확하고 전문성이 높은가와는 관계가 없다. 일관성 비율이 크면 좋은 자료 즉,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은 분명하며, 일관성 비율이 큰 자료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 연구 활동별 중요도 인식 분석 시 일관성 비율이 0.1을 가장 크게 넘는 응답 1건을 제외하고, 총 20개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대하여 대전세종 지역학 전문가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을까? 평가대안에 대한 최종 우선순위 종합을 위한 가중치 도출 결과 '교육사업(0.245)'이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홍보와 네트워킹(0.218)과 상시적 연구활동(0.21)이 그 뒤를 잇고, 공식적 학술활동(0.176), 연구결과물 도출(0.151) 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점하고 있다.

- 이러한 결과는 연구 결과물이나 학술 활동 등 지역학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영역보다 지역학의 가치를 일반인에게 확산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 앞서 서술되었던 지역학 연구의 목표나 가치지향에 대한 응답과 상반되며, 특히 후술될 부분인 지역학 아카이빙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던 개별적 의견 제안 결과와도 엇갈리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 거칠게 보자면 지역학 연구의 학술적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의식하고 있지만 대전세종 지역학은 우선 일반 시민들로부터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의 공감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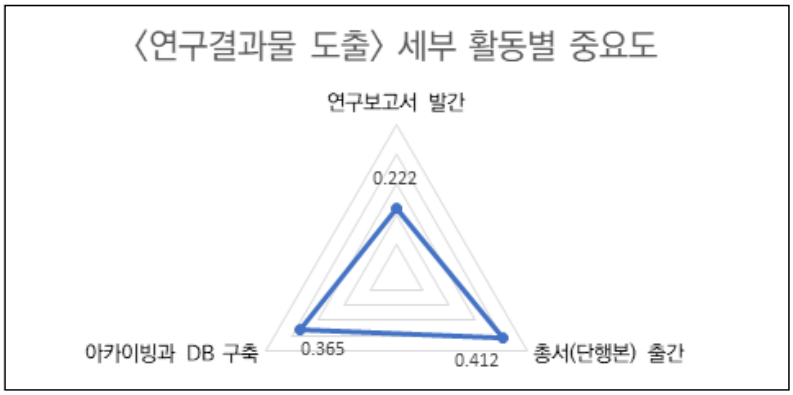
(2) 연구 세부 활동별 중요도 분석 결과

❒ 연구 활동 유형별로 각각 대표적인 세부 활동의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한 설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결과물 도출' 활동의 경우 총서(단행본) 출간(0.412)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 아카이빙과 DB 구축(0.365), 연구보고서 발간(0.222) 순으로 중요하게 보았다.

[표 3-2] 연구결과물 도출의 세부 활동 중요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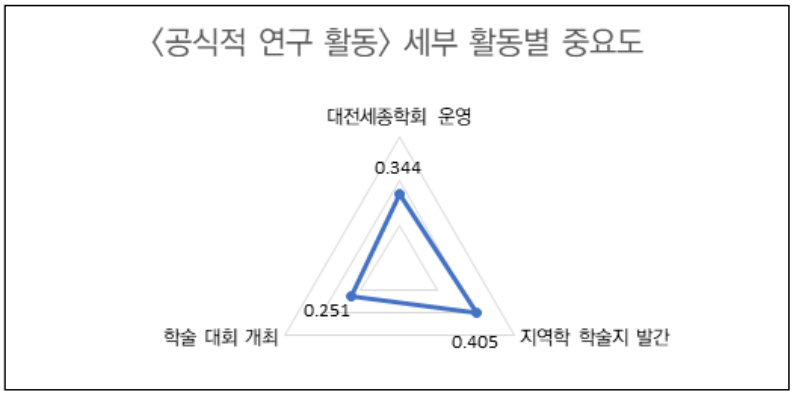
활동유형	세부 활동	평균	순위
연구결과물 도출	연구보고서 발간	0.222	3
	총서(단행본) 출간	0.412	1
	아카이빙과 DB 구축	0.365	2



② 공식적 학술 활동의 경우, 지역학 학술지 발간(0.405), 대전세종학회 운영(0.344), 학술 대회 개최(심포지움 등)(0.251) 순으로 중요하게 보았다.

[표 3-3] 공식적 연구 활동의 세부 활동 중요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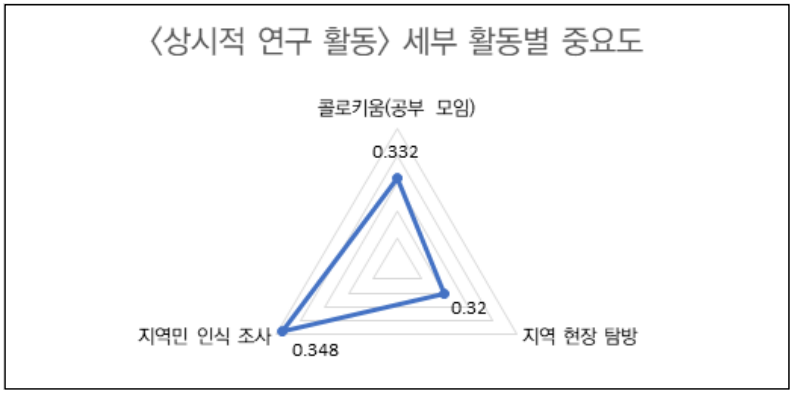
활동유형	세부 활동	평균	순위
공식적 연구 활동	대전세종학회 운영	0.344	2
	지역학 학술지 발간	0.405	1
	학술 대회 개최	0.251	3



③ 상시적 연구 활동의 경우, 지역민 인식 조사(0.348), 콜로키움(공부 모임)(0.332), 지역 현장 탐방(0.32)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표 3-4] 상시적 연구 활동의 세부 활동 중요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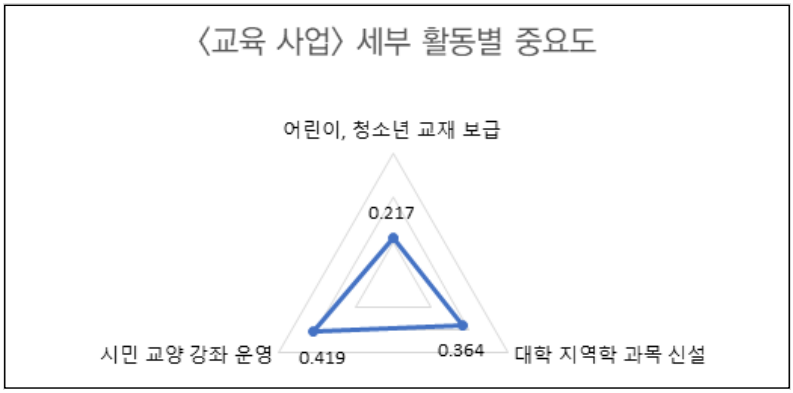
활동유형	세부 활동	평균	순위
상시적 연구 활동	콜로키움(공부 모임)	0.332	2
	지역 현장 탐방	0.32	3
	지역민 인식 조사	0.348	1



④ 교육 사업의 경우, 시민 교양 강좌 운영(0.419), 대학 지역학 과목 신설(0.364), 어린이·청소년 교재 보급(0.217)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표 3-5] 교육 사업의 세부 활동 중요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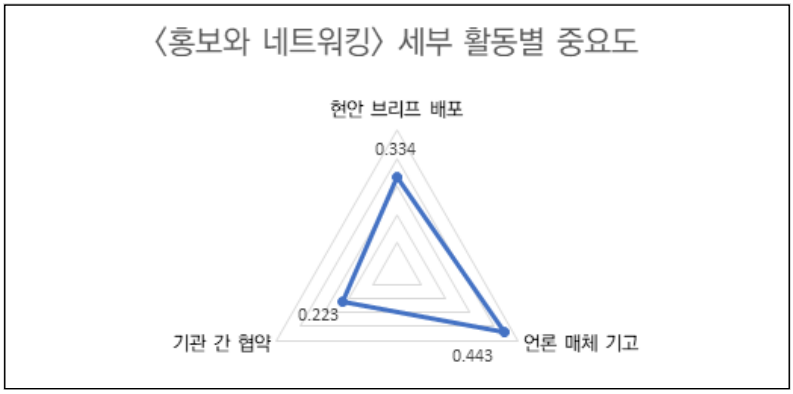
활동유형	세부 활동	평균	순위
교육 사업	어린이, 청소년 교재 보급	0.217	3
	대학 지역학 과목 신설	0.364	2
	시민 교양 강좌 운영	0.419	1



⑤ 홍보와 네트워킹의 경우, 언론 매체 기고(0.443), 현안 브리프 배포(0.334), 기관 간 협약(0.223)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표 3-6] 홍보와 네트워킹의 세부 활동 중요도 비교

활동유형	세부 활동	평균	순위
홍보와 네트워킹	현안 브리프 배포	0.334	2
	언론 매체 기고	0.443	1
	기관 간 협약	0.223	3



❒ 이상의 15개 세부 활동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중요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종합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5대 세부 활동들은 시민 교양 강좌 운영, 언론 매체 기고, 대학 지역학 과목 신설, 지역민 인식 조사, 현안 브리프 배포이다.
- 한편, 연구보고서 발간, 학술 대회 개최, 기관 간 협약 등 전문가와 기관 중심의 지역학 활동의 중요도는 덜 중요하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대전세종 지역학 전문가들이 대체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학 활동의 저변을 넓히는 데에 목적이 있는 활동들이 비교적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7] 지역학 활동의 세부 활동별 종합적 중요도

대분류	분류내 가중치 (A)	소분류	분류내 가중치 (B)	대소분류 연계중요도 (A*B)	종합 순위
연구 결과물 도출	0.151	연구보고서 발간	0.222	3.35%	15
		총서(단행본) 출간	0.412	6.22%	9
		아카이빙과 DB 구축	0.365	5.51%	11
공식적 학술활동	0.176	대전세종학회 운영	0.344	6.05%	10
		지역학 학술지 발간	0.405	7.12%	6
		학술 대회 개최	0.251	4.41%	14
상시적 연구활동	0.21	콜로키움(공부 모임)	0.332	6.97%	7
		지역 현장 탐방	0.32	6.72%	8
		지역민 인식 조사	0.348	7.30%	4
교육사업	0.245	어린이, 청소년 교재 보급	0.217	5.31%	12
		대학 지역학 과목 신설	0.364	8.91%	3
		시민 교양 강좌 운영	0.419	10.26%	1
홍보와 네트워킹	0.218	현안 브리프 배포	0.334	7.28%	5
		언론 매체 기고	0.443	9.65%	2
		기관 간 협약	0.223	4.8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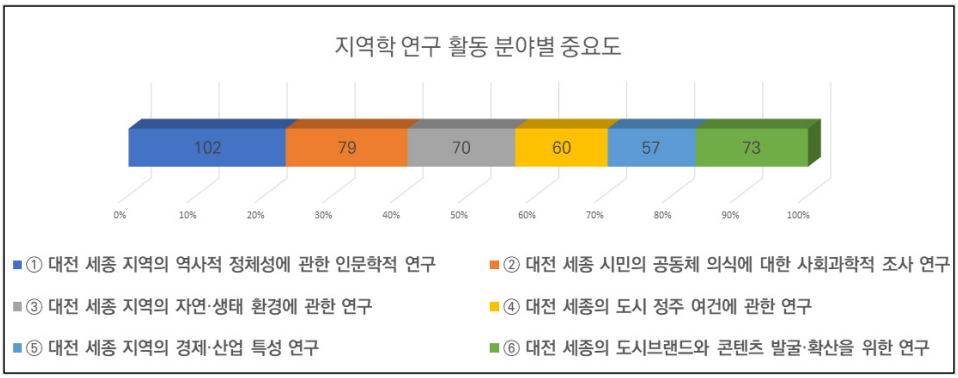
(3) 연구 활동 분야별 중요도 분석 결과

❒ AHP 조사의 응답자들에게 대전세종 지역학 연구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분야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를 기입하도록 하는 설문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 1순위에 6점, 2순위에는 5점을 부과하는 등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과하여, 각 문항의 순위를 도출한 결과, “대전 세종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가 뚜렷하게 중요하다고 꼽혔고, “대전 세종 지역의 경제·산업 특성 연구”나, “대전 세종의 도시 정주 여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서 AHP 조사와 일관된 답변으로, 설문에 답변한 대전세종 지역학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지역학 연구를 인문학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 그런데, 개별 면담에서는 지역학의 연구 분야를 보다 다양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고, 선행 조사에서도 지역학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 이러한 모순성은 대전세종 지역학 연구의 방향성에 대하여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가치 공유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표 3-8] 지역학 연구 활동 분야별 중요도 비교

지역학 연구 활동	총점	순위
① 대전 세종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102	1
② 대전 세종 시민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사회과학적 조사 연구	79	2
③ 대전 세종 지역의 자연·생태 환경에 관한 연구	70	4
④ 대전 세종의 도시 정주 여건에 관한 연구	60	5
⑤ 대전 세종 지역의 경제·산업 특성 연구	57	6
⑥ 대전 세종의 도시브랜드와 콘텐츠 발굴·확산을 위한 연구	73	3
1순위=6점, 2순위=5점, 3순위=4점, 4순위=3점, 5순위=2점, 6순위=1점		



[그림 3-3] 지역학 연구 활동 분야별 중요도

DSI

대전세종 지역학의 주요 아젠다

1. 대전학과 세종학 연구의 주요 아젠다
2. 지역학 활동의 주요 아젠다
3.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의 주요 아젠다

4장

1. 대전학과 세종학 연구의 주요 아젠다

1) 지역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자료 발굴과 축적

(1)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계획 설정의 중요성

❒ 아카이빙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아카이빙 구축 계획을 치밀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 타 지역학 연구원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시의회에서 아카이브 구축에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아카이빙 구축 계획이 중기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기획 단계를 거쳐야 하고, 구축 계획 자체가 실제 구축 시행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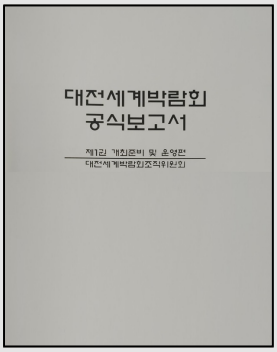
❒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지역학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숨겨져 있는 자료 발굴 사업을 위한 대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문 자료, 공문서 자료 등의 발굴을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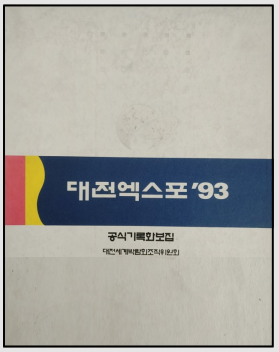
- 〈연구 총서〉 등 대전세종 지역학 총서 발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우선 기존의 대전 관련 연구 성과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 대전에 있는 관련 기관(대전문화재단, 대전시립박물관, 대전문학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연구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아카이빙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대전의 경우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 구에서 벌어지고 있고, 세종시도 새로운 기관 입주와 다양한 시설이 건설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지역의 자료 멸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지역 아카이빙 차원에서도 우선 자료의 수집과 축적이 요구되며 대전시의 경우 대전시사편찬위원회와 지역 문화원, 대전문학관, 대전문화재단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멸실 위기의 근, 현대 관련 사료와 새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전시, 시사편찬자료실 자료 1만여 건 목록화 완료





대전시는 시사편찬자료실의 자료 1만여 건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마무리하며 자료 보존과 정보 공유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목록화 작업은 '시사편찬자료실 전산화(DB) 사업'의 기초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 대전 지역사를 편찬하는 과정 중에 수집된 자료 1만 여건을 대상으로, 대전시정과 관련된 · 역사 · 문화재 · 문학 · 문집류 등을 재분류하여 총괄 목록으로 정리했다. 특히 작업 과정에서 1993년 국제사회에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역량을 보여주었던 대전세계박람회(엑스포'93)와 관련된 운영계획, 화보집, 공식보고서 등의 기록을 다수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굴된 관련 자료는 대전세계박람회 3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 공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에도 신규 수집된 시사편찬자료실의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목록화할 예정이며, 목록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원자료의 기록보존 활용을 목표로 이미지데이터 구축 및 검색시스템 마련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 〈대전시 보도자료〉 2022.1.4.

(2) 아카이브 기록과 활용 방안

❒ 아카이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흥미를 높이고, 기록이 가공되고 제공될 때 실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문화예술인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록화 사업을 통해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기록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소제동에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 영상, 녹취 등의 형태로 담고, 그 지역의 역사와 자료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카이브와 이야기가 연계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아카이브 기록화 작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즉, 학술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는 고정적인 틀을 깨고, 일반 시민들의 역량을 기르고 이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들어가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또한,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
- 시민들이 아카이브 플랫폼을 직접 활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학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과 관련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축적되는 자료를 대전세종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에 활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대전세종 지역은 국내의 다른 광역대도시와 달리 지난 100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한 신흥도시이며, 상대적으로 도시성장 과정에 관한 분야별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근대 이후 도시성장의 콘텐츠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여전히 지역 정체성에 관한 모호함이 존재한다.

❒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축적되는 대전세종지역학 아카이브의 자료는 분야별로 다양한 지역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야별로 폭넓은 다양한 연구 결과의 축적을 통해서만 대전세종의 지역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지역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다.

❒ 대전세종지역학 연구는 폭넓게 인문학, 문화예술, 교육, 사회운동, 도시성장, 언론, 정치, 인물, 과학기술, 교통, 행정조직, 자연환경 등 다양하

게 수행되어야만 하며,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점진적인 자료의 축적을 노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 대덕문화원 대덕도시문화기록 아카이브사업

'대덕도시문화기록 아카이브사업'은 대덕구가 주최하고 대덕문화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덕구의 인물, 장소 등 유무형의 도시기록 자료 조사 및 수집을 통해 마을의 정체성과 지역 문화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단과 전문조사단, 자문위원단 등을 구성하여 신탄진 지역의 사건, 인물, 장소, 유물, 문헌 등의 조사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장조사보고서, 구술채록집, 아카이브 매핑 페이지 개설 등의 결과를 내고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부터는 대덕구 관내 각 동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대덕구에서는 대전시 최초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도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하였다.



신탄진 아카이브 매핑(좌), 성과공유회 포스터 및 진행사진(우)

출처: 대덕문화원 홈페이지, 〈뉴스밴드〉

2) 연구 범위의 명료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주제를 확장해 가야

(1) 연구의 범위와 방향 설정에 대한 더 깊은 고민 필요

❒ '대전'이라는 도시의 구성원들이 "대전"의 상(像)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데 노력해야 한다. 역사와 전통을 기반한 정체성 찾기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대전시민이 생각(전망 또는 비전)하는 바를 묶어 세워야 한다.

❒ 지역학의 근본은 지리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종의 지리적 배경이 명확해야만 대전·세종 지역학의 연계성과 정체성을 설정할 수 있다.

- 대전학, 세종학과 같은 지역적 구분에 따른 연구가 각각 이루어져야 하고 대전·세종 지역의 공통현안이 함께 논의되는 과정이 요구된다.

❒ 대전과 세종 각 지역의 역사, 시민의 삶, 미래상을 연구도 동의하지만 대전과 세종의 공통된 뿌리나 현재의 정체성, 그리고 두 도시의 상생 발전방안을 연구해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 연구나 조사 과정에서 마을이나 특정권역을 선정하여 지역 어르신에 대한 구술 해독이나 자료축적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시민·주민을 활용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역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 도시 정체성에 따른 연구 주제 설정

① 대전 : 과학도시와 근대도시 대전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학 연구

❒ 기존의 향토사 중심의 연구를 넘어서 지난 100년 이후 급속하게 성장한 대전의 근대 도시성장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 일제강점기 신문이나 기록자료 중 대전, 연기군, 공주군과 관련된 일본어 자료의 수집 및 번역이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
- 일례로 '대전을유해방기념비'의 이전과 같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재들을 발굴하고 심층 연구를 통해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 대전은 대덕연구단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과학기술을 연계한 지역학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② 세종 : 신흥 도시와 전통 사회의 공존을 다채롭게 풀어내는 연구

❒ 세종의 도시 구조는 행정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 권역과 조치원읍·전의면·금남면을 중심으로 하는 읍면지역으로 나뉜 도농복합도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세종시의 도시정체성은 앞으로 행정수도, 스마트시티 등과 관련하여 계속 변화·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적 가치에 중심을 둬야 한다.

- 현재와 과거의 조화 속에서 미래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지역학이 대전과 세종의 미래에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고민이 필요하다.
- 하지만 미래적 가치에 중심을 두더라도, 읍면지역의 주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통사회의 공존을 모색할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총서 간행의 전략적 선택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기획

(1) 자료총서의 시급성

❒ 현재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발간 예정인 지역학 총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획총서 : 다양한 영역에서 대전-세종의 특성을 탐구하여 지역정체성을 새로이 구현하는 특별 기획 연구서 발간
- 연구총서 : 그동안 학계와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되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집중 조명되지 못한 연구 성과를 재발굴하고 후속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축적하는 연속형 연구서 발간
- 교양총서 : 일반 시민들이 친숙하게 대전-세종의 지역정체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흥미롭고 다채로운 소재를 집약하여 감각적인 형태로 연속 발간
- 자료총서 : 대전-세종의 지역정체성에 관한 전문적 연구의 확장을 위하여 일차 자료 중심의 발굴, 축적, 체계화된 자료집 발간

❒ 이 가운데 특히 자료총서 발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근현대

관련한 일차 자료든, 기록화 된 자료이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나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연구분과 내에서도 위원 간 토론을 통해 자료총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 최근 100년 근대 시기의 도시의 성장과 지역의 인물 등 지역이 확장해 나가는 과정 자체 모두 현재 대전 시민들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미 있는 역사이다.

- 그러나 100년에 대한 연구와 아카이브가 상당히 미흡하여, 기억이 기록화 되지 못하고 축적되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55년까지의 대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자료의 공유 문제가 심각하다.
- 실례로 대전문학의 실증적인 자료들이 현재까지 소개되지 않고 있다. 해방이후 1955년까지 신문자료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1955년 대전일보 자료가 있지만 접근할 수 없고. 시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대전일보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자료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전시의 노력 또한 미진하다.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면, 대전문학사가 새롭게 쓰일 정도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 향토사적인 연구들도 중요하지만, 100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했던 우리를 기록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집하여 깊이 있는 연구들을 전개함으로써 아카이빙 축적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미래 세대들이 대전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세종시의 경우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없이 신도시로 성장한 안타까움이 있으며,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미미한 상태라 할 수 있다.

-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권역 조성으로 인한 소멸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도시 조성 이후 변화 양상을 살피기 위한 민속 학술조사, 세종시 내 마을공동체 활동·도시재생 등에서 나타난 주민자치에 대한 기록물 아카이브 등을 조성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인류·민속분야 문화유산 지표조사(2006),

세종민속문화의 해(2016)·마을기록문화관(2019) 등이 있다.

- 하지만 이 같은 활동은 행정복합도시인 신도시 권역에 치중되어 있어, 읍면지역의 문화실태와 변화양상 등에 대한 기록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정체성 구현을 할 필요가 있다.

(2) 일상에 다가가는 주제 발굴

❒ 저서 발간은 창의적으로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원고 발굴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원고 보다는 주제가 명료하고 실생활의 요구와도 연결성을 갖는 주제를 발굴해야 한다.

- 일례로 “시간대 별로 대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대전의 공간 이용도 분석에서 물리적 밀도와 전파 밀도의 상관성” “택시는 대전에서 시간대 별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대전역을 통해 유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목적성과 경향성” 등에 관하여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일상을 분석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게릴라 총서 발간

- 기획총서, 연구총서, 교양총서, 자료총서 외 추가로 게릴라총서를 신설하여 대전세종 지역학 연구만의 차별성을 높인다.
- 일례로 대전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으로 진행해온 〈오!대전〉을 매거진 형식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콜로키움, 세미나를 통한 주제 발굴

- 콜로키움의 주제를 총서의 내용으로 수렴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격 월로 이루어지는 콜로키움의 주제를 잘 설정하여 이 내용을 총서로 연결되도록 한다.
- 콜로키움 진행시 현재 지역학연구센터 분과위원들이 각자 대전지역 전문가로서 활동한 내용을 소개. 이럴 경우 각자의 전문분야를 소개함으로써 위원들 상호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단순한 기획이나 정책회의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융복합 담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 대전 원도심 문화잡지 〈오!대전〉

〈오!대전〉은 대전의 원도심을 탐구하기 위해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2013년부터 대전 원도심 모습을 있는 그대로 탐구하고 기록하여 책으로 남기기로 하였고, 2016년에는 '성심당'의 후원으로 전시로 확장하였으며, '한호에 한 동네'를 주제로 〈오!대전〉 잡지를 창간하였다.

원도심에서 캐낸 자료와 만났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모아 책을 만들고 디자인 상품 개발, 포스터와 영상을 제작하여 해마다 전시회를 열었으며, 2021년에는 조사 대상 범위를 도시 전역으로 확장하여 진행하였다.



〈오!대전〉 잡지 - 5호(좌), 6호(우)



〈오!대전〉 전시회 - 2020년도 제5회(좌), 2021년도 제6회(우)

출처: 오!대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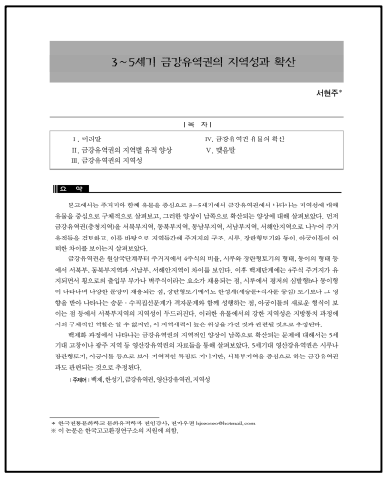
4) 관계사 연구를 통해 지역학 연구의 확장과 도약을 모색해야

(1) 관계사 연구의 필요성

❒ 지역학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독창적인 지역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학은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 행정단위 지역학이며, 그 결과로 강원학, 부산학, 제주학 등이 등장하였다.[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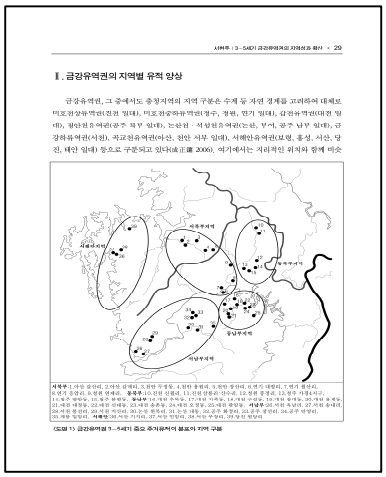
❒ 하지만 대전과 세종의 지역학은 대전과 세종이라는 행정적인 경계가 공간영역으로 중요하지만, 대전과 세종은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생의 대전세종학·상생의 대전·세종학의 연구도 중요하다.

❒ 이처럼 행정적인 경계에서 벗어나 관계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적 경계를 넘나드는 금강, 낙동강, 한강, 영산강 등 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문화와 지역과 지역의 공동연구, 비교연구를 비롯한 관계 연구 등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5세기 금강유역권의 지역성과 확산

서현주*



Ⅱ. 금강유역권의 지역별 유적 양상

[그림 4-1] 서현주(2011), 「3~5세기 금강유역권의 지역성과 확산」, 『호남고고학보』37권

출처: 호남고고학회 홈페이지

40) 한상헌 외(2019),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연구 2019-02, 11쪽 참조.

(2) 관계사 연구의 방법론

❒ 이를 위한 실천적 기제로서 도시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거시사와 미시사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도시사 연구에 대한 관점을 적용하여 관계사 연구의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대구경북학회에서는 대구와 경북을 관통하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고대·중세·근대에 이룩한 문명사를 발굴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4-2] 대구경북학회 〈낙동강 문명사〉

출처: 〈예천뉴스〉

- 따라서 대전과 세종의 지역학에서도 '금강', '유교문화', '이응노와 장욱진'등 대전과 세종을 관통하는 아젠다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주변 지역인 공주·청주·천안·옥천 등과 상생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2020), 〈금강의 역사와 문화〉

출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 지역학 활동의 주요 아젠다

1) 지속가능한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한 아젠다 설정

(1) 조례 등 법제 정비

❒ 대전시와 세종시 지역학 진흥 조례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의 내용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정체성 확립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역학 연구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대구경북학회가 창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사와 문화, 행정구역의 연계성이 있었다. 대전세종지역학 연구에서도 충남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예산 확보의 문제와 시스템과 재정의 문제는 서로 얽혀있으므로, 지역학센터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재정은 조례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2) 연구 인력과 연구 네트워크 확장

❒ 대전세종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 참여하는 연구 인력은 공식적인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향토 연구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구 작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지역학 시민연구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시민지역학자 등과 같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일례로 마을박물관 활동의 경우 지역학 시민연구자의 발굴과 확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학 연구 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 지역 내 공공기관들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한국 효문화 진흥원 등의 전통 문화 활성화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한다.

- 한편 '대전소재 대학 산학협력단 협의회(대산협)' 등 현재적 가치 확산 기관과도 공동사업을 도출하면서 지역학 연구 방향의 다양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 교육기관과의 협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학의 직접적 연구 인력 확충과 지역학 연구의 수요자 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 초중고는 물론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지역학의 가치와 이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일반 시민 대상 시판용 표준 교재 제작도 시도할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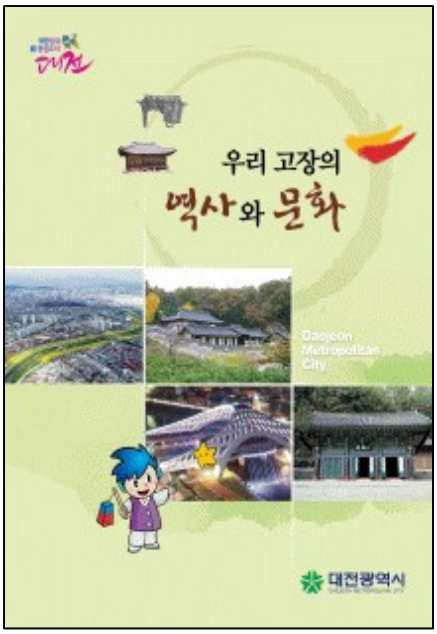
(3)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대전학, 세종학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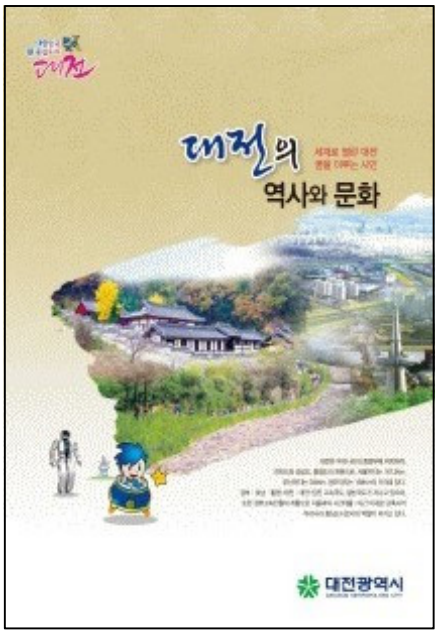
❒ 지역학의 의미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자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미래에 우리 지나온 역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지역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학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특히 중요한 것은 대전 세종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지역이라는 개념이 자신의 정체성 형성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현재 어떤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자기 지역에 대해 알려주고 있지 않다. 정체성이 형성될 시기에 지역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으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지역에 대한 생각과 자기 위안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과 과정에 지역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림 4-4] 대전시에서 발간한 '역사와 문화' 교재(2012) - 초등교재(좌), 중등교재(우)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2) 지역학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아젠다 설정

(1) 연구 성과의 활용

① 지역문화 확산의 동인

❒ 대전세종 지역학은 학문적인 성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의 문화 현장에서 활용되고 뻗어나가 지역 문화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 즉,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다양하게 변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 전략처럼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사업들과 학문적 연구가 향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원천 자료로서의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 현재 대전의 문화예술계에서는 지역 역사를 배경으로 한 문화예술 창작물을 창출하는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지역에 대한 연구가 없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대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지역 정체성 확립이나 미래지향적 사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론적, 역사적, 현실적인 타당하고 합리적인 뒷받침점이 될 수 있는 지역학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 지역학 연구가 학문연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고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 지역학이 지역 문화의 한 부분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로서의 연구과제가 되어 지역학으로 시민문화가 풍부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 일례로 대전시에서는 대전의 시 승격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을 기념하여, 2018년 '대전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3년의 기간에 걸쳐 추진하였다. 그런데 "대전 방문의 해"를 선포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전의 시 승격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이라는 역사에 기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7030의 의미와 과거에 대한 재조명, 미래상에 대한 제시가 없다.

- 대전 시민과 방문객이 대전을 방문하고 싶고, 알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역학 연구를 통해 대전시 7030 역사와 의미,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탐구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텐데 이러한 경우에 그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지역학이다.

② 연구 성과의 정책적 활용은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 연구로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 가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학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 그러나 지역학의 연구가 어떤 성과 중심보다 지역학과 관련된 '원천자료'에 수집과 해제 등 기본에 충실하고 그다음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지역학의 여러 과제 중 어떤 과제가 우선 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 지역학 연구센터는 대전시와 세종시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시적인 성과를 급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수 있는 데 이러한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 성심당 문화원

대전 대표 빵집인 '성심당'에서 복합문화공간인 '성심당 문화원'을 3월초 은행동에 오픈할 예정이다.

성심당 문화원은 총 5층 규모로 1층엔 카페와 비건 빵·비건식료품 매장, 2층엔 리사이클·제로웨이스트 굿즈와 성심당 굿즈를 파는 잡화점이 마련된다. 3층부터 5층엔 문화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지역 작가들의 그림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 〈중도일보〉 2022.2.6.



오픈 준비 중인 성심당 문화원 건물

(2) 지역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 지역학은 그 지역의 역사와 인물 그리고 시대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학의 중요성과 지역성 관련된 정보, 지역의 정체성 등을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 최근 대전의 경우 충남대, 한남대 등 대학을 중심으로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주소 옮기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단순하게 주소를 지역으로 옮기는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양과목 등에 '지역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지역학에 대한 저변의 확장을 넓히기 위하여 각 도시의 지역 활동가나 민간 연구원들의 인력풀을 조사하고 이들과 포럼 등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학에 대한 인식을 연대감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지역학 연구 활동의 당위적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지역학' 연구가 왜 필요한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지역학이 단순하게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 사이에 정체성을 공유하며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만 필요한 영역은 아니다. 지역학 연구가 필요한 당위성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 이런 논리적 근거 제시는 지역학 연구가 단순히 지역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올해 한국지역학포럼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의 커다란 축으로 거론되고 있는 메가시티 단위의 지역학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학과 관련된 논의를 이 메가시티 논의에 맞춰서 진행하는 경우 전국 단위의 지역학 논의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의 주요 아젠다

1) 지역 간 정체성의 이해는 상생의 선결 조건

(1) 대전과 세종의 공통적 지역 특성

❒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동질지역은 어떤 특정한 지리적 현상이 동일하게 분포하는 공간 범위를 말하며, 그 예로는 기후 지역, 문화권, 종교 지역, 농업 지역 등이 있다.
- 기능 지역은 중심지의 기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그 예로는 상권, 통학권, 통근권, 배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능 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정체성은 여러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 시민들이나 전문가에게 두 지역 간 공통점을 질문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떠올린다.

❒ 동일충청권역, 동일생활권으로 언어, 가치관, 생활양식이 비슷하다.

- 충청남도에 역사적, 행정적 뿌리를 두고 있어 역사적 문화적 일체감을 지닌다. 중원의 역사적 공통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공동체의 기원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이러한 공동생활권의 요소는 인근 다른 지역보다 대전, 세종 간에 밀접한 연계성과 긴밀한 상생 협력의 가능성을 지닌다.
- 대전과 세종 모두 백제문화권으로, 대전과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성을 보유한 지역이고, 조선 후기 기호학파의 활동 무대일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당파, 학문, 인물 등이 유사하며 이들의 활동 지역이 중첩된다.
- 역사적 정체성으로 볼 때, 대전시 대덕구와 세종시 전의면은 백제라는 교집합이 있다. 따라서 지리와 역사를 중심으로 두 지역의 공통점을 풀어나가면 좋을 것이다.

❒ 동일한 금강유역권으로 자연, 생태 환경에 대한 유사점을 지닌다.

- 대전과 세종은 전통적으로 충청권 남부의 지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금강을 끼고 있는 생태환경적 동일권역, 대전은 금강 상류, 세종은 하류지역으로 대청호를 수원으로 함께 사용한다. 예부터 '한우물 먹는 동네 사람'인 것이다. 대전과 세종의 지리적 인접성은 지역학의 가장 기초적 토대이다. 두 도시 모두 금강 권역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상호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자연 환경이 척박하지 않아 성격이 원만하고, 교통의 요지로 인구이동이 빈번하여 지역 정체성이 타 지역에 비해 강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정서적 유대가 유연하다.

❒ 유사한 지역 정서

- 이처럼 자연 환경과 역사 환경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반 대중에 각인된 충청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전과 세종시 주변의 선주민들은 충청권 내의 타 지역(천안 아산 서부지역이나 충북지역 등)에 비해서 충절, 예의, 의지 등 전통적 정서와 문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근현대 역사에서 첨단 지식도시로서의 공통점

- 대전과 세종은 도시 성장배경의 유사성을 지닌다. 경부선 철도 개통으로 대전, 조치원은 근대도시로서 급성장하였다. 국가 발전 전략에 의해 선택되어 과학, 행정 등 급성장한 지역이다. 대전과 세종은 일제기 철도 교통의 발달로 형성된 도시라는 특징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동시에 도시로서의 초기 외형과 기반시설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형성되었고, 이후 이 두 도시의 성장은 196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점도 공통점이다.
- 이처럼 급격한 도시의 성장사는 두 도시 모두 한쪽에 전통적인 고을을 가진 상태에서 인위적인 도심을 새롭게 구성했다는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새로 지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 입주 비율이 높아 이 세대가 갖는 특징이 조금씩 문화로 자리잡아가는 부분도 유사하

다. 또한 두 지역 모두 서울 및 수도권과 무척 가까운 거리에 있어 다양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 대전과 세종은 지식 중심 도시이면서 교통의 중심으로 충청 지역의 허브라는 대내적 자존감과 대외적 인식을 함께 지니고 있다. 두 지역 모두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로서 세종은 중앙부처, 대전은 부처의 외청이 입지하고 있어 국가 행정의 중심 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정책적 선택에 의해서 급속하게 성장한 젊은 도시이며, 국가의 핵심기능(행정, 국방, 연구&교육 등)이 자리한 중부권 중심지역일 뿐만 아니라 외지의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형성된 도시로서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 큰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 현재까지도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범 충청권'이라는 지역민들의 의식, 금강을 낀 같은 권역이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2) 대전과 세종의 서로 다른 지역 특성

❒ 지역학 연구 과정에서 대전과 세종의 서로 다른 특성은 점이 지역과 인지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 점이 지역은 서로 인접한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섞여 나타나는 지역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 문화권 사이에 두 지역의 언어가 서로 섞여서 사용되는 지역은 점이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점이 지역은 지역과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 인지 지역 혹은 인식 지역이란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 살고 있다고 믿는 곳이다. 인지 지역은 지리적 사고를 통해 개발된 학문적 모델이라기보다는 장소에 대한 비공식적 감정으로 나타난다.

❒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니고 있는 지역 특성 중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된다.

❒ 대전시는 '근대도시'이면서 '과학도시'로 특징되고, 세종시는 새롭게 조성된 '행정도시'로 특징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두 지식기반 첨단도시

의 성격을 지니지만, 내용적으로 '과학'과 '행정'이 지니는 의미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20세기 내내 대전은 중원 도시의 뿌리로 위상을 높여왔고, 세종시는 국가적 과제로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행정도시의 역할과 기능성을 갖는다.

- 근대도시로서 대전은 이제 100년이 넘는 도시 역사를 가졌지만, 세종은 이제 막 형성해 새롭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점은 지역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큰 차이로 이어진다.

❒ 세종시는 행정수도 건설의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20세기 초부터 근대도시로서 본격적으로 발전한 대전의 도시 역사에 비해 역사가 짧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세종시를 행정도시로만 바라봄으로써, 그 이전에 오랫동안 주민들이 거주했던 연기군 등의 지역을 망각할 위험이 있다.

- 따라서 세종시의 역사를 짧다고 평가하기보다는 대전에 비해 더 급격한 인위적 조성의 결과로 지역 내부에 도심과 비도심 지역의 극단적 단절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 대전과 세종의 지역 특성 중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은 대전은 일제강점기 이후 100년의 시간 속에서 역사적 계기 즉 8·15, 한국전쟁, 경제성장, 고속도로건설 등의 국가사업들이 계속되는 속에서 고도성장을 이룩한 데 반해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민적 합의와 중앙정치권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인해 인위적인 도시형성 및 성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다.

- 100년 이상의 성장 과정을 거친 대전시와 달리 세종시의 경우는 최근 새롭게 조성된 핵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쇠락하는 농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의 산업적 특성과 생활환경이 서로 상이하며, 특히 공간적으로 광범한 농촌 지역으로 구성된 세종시의 경우는 도시 내의 인구 특성과 지역간 격차의 문제가 대전시와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 세종은 기존에 마을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과 새로 개발된 도심부에 전입해 오신 분들 사이에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에 비해 대

전은 그 차이의 정도가 세종만큼 심하지 않다.

❒ 생활권역이 다르고 역사적 경험의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갖고 있는 차이점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정서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표출하기도 한다.

- 세종은 2012년 출범한 도시로, 지역의 역사를 어느 시점으로 설정할지가 중요하다. 물론 공주와 조치원 등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였기 때문에 역사적 스펙트럼은 꽤 넓지만,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매우 약하다. 이에 반해 대전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탄탄한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 현재 세종시 구성원 중 상당수는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인해 2000년 이후 유입된 사람들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주민의 비율이 훨씬 높은 대전시 구성원들과는 성향과 관심사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치적인 성향에서도 차이가 있다.
- 대전은 토착 주민이 많은 반면, 세종시는 서울을 비롯한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애착 및 관심과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지역학에서 두 지역을 어떻게 일원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 대전시가 구성원 간 오랜 인연으로 도시의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신생도시로서 불안정성이 높고, 변화요인이 많다. 급변하는 생활권의 특성과 세종의 위상변화 등으로 인해 세종은 정책수립에도 변수가 많고 갈등요인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다.

❒ 대전시는 자체적인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축으로 주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향후 급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확률이 높지만 기본적인 생산과 경제 기반 여건의 한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 대전 세종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대전은 전국 사통팔달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세종시는 전국 거리 이동이 편리하나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하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담은 축제가 대전에는 여러 개가 있는 반면 세종시는 지역성을 담은 축제를 찾기 어렵다.

❒ 따라서 어찌 되었든 간에 대도시로만 국한시킨다면 대전시의 도시형성 역사가 세종시보다 길고, 두 도시의 기반시설과 편의 시설은 차이가 크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도시의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대전시는 세종시의 배후에 있는 모도시로서의 특성과 역할을 갖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2) 지역 간 공통의 목표를 향한 정서적 공유 아젠다 설정

(1) 지역학 연구 활동으로 문화 분권과 문화적 다양성 확보

❒ 세종은 현대도시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대전은 근대도시로의 정체성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망국병이라 일컫는 서울 집중과 확산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 과제이다. 지방 소멸이 이야기되는 시대, 분권과 자치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지역학'은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2030년까지 인구규모 50만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는 인구의 규모나 시장규모 그리고 각종 문화시설 의 수준, 다양성, 그리고 질(質)의 측면에서 자족도시가 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출범할 때부터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인구 150만 대전시와 공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에서 출범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도시규모론(都市規模論)의 관점으로 볼 때도 세종시가 완성되어 목표대로 상주인구가 50만이 되고 유동인구 포함해서 80만이 된다고 해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 따라서 두 도시가 독립적 지자체로서 현안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독자적으로나,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으로 접근을 할 때 그 비용은 너무나 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두 도시의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고 공동운명체로서의 상생을 지향하는 목표를 담아야 한다.

❒ 이러한 현실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역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학이 지닌 특성상 주로 과거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지금 현재 정체성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며 지역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학이 고루한 영역이 아닌 미래를 상상하고 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역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당대 시민이 정체성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비슷한 결을 느끼며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작업이다.

(2) 미래 세대를 위한 대전·세종 공동의 정체성 확립과 정당성 부여

① 미래 지향적 방향 설정의 필요성

❒ 세종시 출범과 과거 대덕연구단지 조성 등 지역은 계속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게 되어 있다. 과거만 쫓아가는 연구는 사람들에게 지역학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소구점과 매력이 부족하다.

❒ 현재와 과거의 조화 속에서 미래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지역학이 대전과 세종의 미래에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고민이 필수적이다.

② 상생발전의 기초로서 지역학의 필요성 환기

❒ 지역학이 기초하는 것은 지리적 배경임. 대전의 경우, 지리적 배경과 정체성이 명확하지만 세종의 경우에는 지리적 배경과 역사가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대전·세종의 공동의 정체성 확립에 충돌이 될 수도 있다.

- 대전 세종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확립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일본의 지방학 연구, 예를 들어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등 지역에 대한 연구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앞으로 대전시, 세종시의 역할과 위상이 계속해서 달라질 것이며, 대전세종지역학이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

- 한편으로는 대전시와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연구방향성과 주제를 설정할 필요성도 있으며, 일반 시민들이 대전과 세종이 왜 함께 가야하는지, 지역 상생에 대한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전세종지역학의 학문으로서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대전과 세종이 어떻게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고 함께 갈 수 있을지 또는 따로 상생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메가시티 논의의 초석이 되는 지역학

❒ 대전 세종은 충청권의 대표적인 도시이지만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 시민들이 생활권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겹치고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전세종 지역학을 충청권 전체와 연계하여 고민하고 활동을 넓혀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현재 대전·충남·세종·충북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충청권 메가시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듯이 이를 기반으로 대전 세종, 나아가 충청권의 연구들을 모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 공동합의(2020)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3)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서 대전세종학회의 창립

(1) 대전세종학회의 필요성

❒ 대전세종지역학연구포럼의 출발은 다른 지역의 지역학 연구 네트워크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세종과 대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해야 할 일도 많고 기대되는 부분이 많다. 포럼출발이 갖는 과제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대전학과 세종학의 독자적인 연구로 정체성을 규명하여야 한다. 우선 대전학과 세종학의 연구주제가 시급히 발굴되어야 한다. 대전학과 세종학의 공동연구주제가 발굴되고 대전학과 세종학의 공동 협력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대전, 세종 지역 연구학을 플랫폼을 만들어 하나의 통일된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 분야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제각각이니 구체적으로 분과를 만들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러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포럼에서 학회로 보다 지속가능한 기반을 갖추는 도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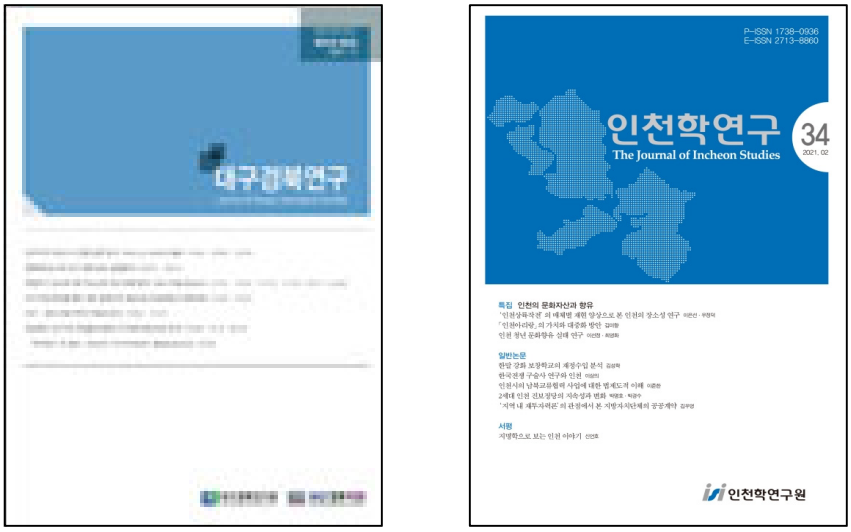
-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우선 '대전세종학회' 준비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분괴위원회를 학회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조직체로 전환하여 세부 상황과 진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학회 회칙, 목적, 참여 임원 및 회원 모집, 총회 준비 등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성 활동을 위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학회 준비위원회의 준비 과정에서 2022년 한국지역학포럼 개최하면서 준비위 명의의 학술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2) 대전세종학회를 통한 대전세종 지역학 연구의 성과 확산

❒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2022년도부터 추진되는 대전세종지역학 관련 연구의 성과를 대전세종지역학회의 설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구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용을 '특별기획'으로 편집 출간하여 학회의 연구 성과로 축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 이를 위해 학회 설립은 중요하지만 다음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만 한다. 대전세종학회의 발족은 대전세종지역학센터의 여타 사업 계획과 연계해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을 해야만 한다.

- '학회'의 설립과 운영은 '연구'나 '네트워킹'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동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지만, 학회 운영의 경우는 단순히 회원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학술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림 4-6] 〈대구경북연구〉(좌), 〈인천학연구〉(우)

출처: 대구경북연구소 홈페이지, DBpia

(3) 대전세종학회 추진의 실행 단계와 요건

❒ 대전세종지역학회는 전문가 중심의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련한 학문적 전문역량을 가진 회원의 확보가 중요한다. 이는 앞으로 마련할 학회 정관과 관련해서 회원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회원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면 회원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향후 학회지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학술지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은 '편집장', '편집위원', '간사(실무)' 등이 필요하며, 3년 정도의 업적을 축적하여 '등재지'로 발전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회지 게재 원고를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첫해는 투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투고된 원고를 모아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출간하는 일련의 과정은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센터의 인원 중 1인이 행정적 일처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학회 정관의 회원 자격 규정과 관련해서도 학위를 취득한 공식적인 전문가 이외에도 지역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아마추어 향토 연구자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문 학술지로서의 학회지 정체성이 불분명해질 위험이 있다.

❒ 실무적 추진 차원에서 학회 설립 및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점담 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정기 학술지를 발간하는 예산 확보와 전담인력 확보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전담인력은 유급이나 전일제 근무일 필요는 없으나, 학회 업무와 학술지 발간을 전담할 수 있는 연구자여야 하고 특히 다른 학술지 발간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 확보가 최우선적 과제이다.

DSI

결론과 제안

1. 대전세종 지역학이 당면한 과제
2. 지역학 연구 사례
   : 대전세종의 생태·환경 분야

5장

1. 대전세종 지역학이 당면한 과제

1) 자료의 발굴과 축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지역학 연구

전술한 내용에서 줄곧 강조되었듯 대전학, 세종학 연구의 주요 아젠다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료 발굴과 축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계획 설정이 중요하며, 아카이브 기록과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성·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연구범위의 명료성과 함께 주제를 확장해가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대전과 세종의 연구범위와 방향설정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대전세종학·대전·세종학과도 엄밀한 연구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주제 설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전의 연구주제로서 '과학도시와 근대도시 대전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학 연구', 세종의 연구주제로서 '신도시와 전통사회의 공존을 다채롭게 풀어내는 연구'라는 아젠다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총서 간행의 전략적 선택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기획이 요구되었다. 지역학 연구의 천착을 위해 자료총서가 시급히 발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고, 연구총서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의 목록화와 함께 일상에 다가가는 주제 발굴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2) 지역생존의 절박함에서 출발하는 실천적 지역학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시대를 지나면서 교통·통신 기술의 발전은 가히 비약적으로 이루었다. 이로 인해 세계는 더욱 가깝게 연결되었지만, 지역이 가지는 문화적 특수성·다양성은 점차 옅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마쓰다히로야가 언급한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은 점차 현실이 되어 이에 대한 위기의식은 늘어났다.

실제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는 지방소멸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같은 지방의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점차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적 실천이 요구되었다.

세계에서의 지역학은 초기에는 여행기로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되었으며,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지역학은 산업화 이후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제로서 출현하였으며, 1992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욱 주목을 받았다.

지역학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학문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융합학문적 성격으로, 지역학의 실천을 통해 지역정체성 구현의 기제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소멸지역에 대한 기록화 작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 네트워킹의 강화, 정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지역사 편찬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 받음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다.

지역학은 분과학문으로서 지역학이 아니라 융합과 실천의 영역을 함께 포괄하는 학제적 연구이다. 학문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연구와 교양총서 발간, 논문집 간행 등을 비롯하여 연구 네트워크 조직인 학회의 결성과 창립, 학술지의 등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시민 교류 활동이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현장탐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학, 세종학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3) 대전과 세종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상생의 지역학 연구

대전세종 지역학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학문적·정신적 토대를 구현을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지난 세기 동안 교통의 요충지로서 정체성을 지녀왔던 대전시는 21세기 국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쇠퇴의 위기를 극복하고 첨단 과학도시로서 미래 발전을 위해 세종시와의 상생 협력이 절실하다. 세종시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의해 조성된 도시로서, 행정수도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전과 세종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학의 실천이 필요하다. 더욱이 대전과 세종은 물리적으로 경계에 위치하여, 교통·행정·문화 등 유사한 생활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과학도시의 대전·행정도시의 세종이 상생협력을 실천할 때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므로, 대전과 세종·세종과 대전의 지역학은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의 주요 아젠다로서 지역 간 정체성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과 세종의 공통적 지역 특성과 다른 지역 특성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간 공통의 목표를 향한 정서적 공유 아젠다 설정을 위해 문화 분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대전과 세종의 공동 정체성 확립과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정신적·학문적인 초석을 지역학이 논의의 초석으로 기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과 세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학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대전세종학회가 필요함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행정적 경계를 통한 단독 지역의 연구보다는 금강 유역권, 유교 문화 등 지역을 관통하는 아젠다를 활용한 관계사 연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4) '대전세종 지역학'의 특별함을 부각하는 융합적 연구

지역학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수행된 연구가 대전학, 세종학이 지역학으로서 가져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 지역학이 함의하는 가치와 의미 등에 대한 개인연구가 이루어졌었다. 이후 이 연구는 대전과 세종의 지역상생을 위한 연구의 방향성과 아젠다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차년도의 지역학 연구로 대전학, 세종학의 차원에서 대전세종학, 대전·세종학을 아우르는 연구가 필요하며, 다음 단계의 연구로서 사업발굴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전학과 세종학은 나름 학문적 노력을 통해 실천을 하고 있었다. 대전학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대전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하였다. 기초자치단체 문화원·대학연구소·대전학연구회 등 기관과 개인연구자들은 대전의 유교문화와 근대역사, 신도심 이후에 펼쳐진 역사적 움직임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도시 출범 10주년을 곧 맞이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학도 일찌감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화를 실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 세종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학 네트워크로서 '세종학진흥위원회', 지역학 공론장으로서 '세종학 포럼', 지역학 공감의 장으로서 '세종의 재발견'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세종시의 주무부서와 관련 기관, 지역 대학과 연구소 등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자못 주목할 만하다.

대전과 세종의 지역학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이제는 대전학·세종학을 비롯하여 대전세종학, 대전·세종학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과 세종의 화학적 결합을 의미하는 공생의 관점에서의 대전세종학의 연구와 대전과 세종의 지역 특수성은 서로 인정하면서 물리적으로 결합한 대전·세종학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지역학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기본 조건

지역학 활동의 주요 아젠다로서 지속가능한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조례 등 법제 정비가 필요하며, 연구인력과 네트워크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 인식의 확산을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대전학·세종학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지역학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 연구 성과의 활용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역학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지역학 연구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대전학과 세종학에 대한 조례는 각 2020년, 2019년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대전학은 대전학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항목이 제정되어 있으나, 세종학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역학연구 전문기관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 부분도 누락 되어 있다. 따라서 세종학의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이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2. 지역학 연구 사례 : 대전세종의 생태·환경 분야

1) 대전세종 지역학 생태·환경 분야 연구 개요

대전·세종은 한반도 중·남부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충청남도 공주시와 계룡시,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남쪽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군, 동쪽으로는 충청북도 보은군과 옥천군 등과 접해 있다. 지형적으로 대전은 외곽을 따라 주요 산림이 분포하는 분지형이다. 또한, 해발고도가 낮은 중앙부에는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등 하천과 넓은 평야지대가 자리잡고 있다(대전광역시 2015). 세종은 북쪽 대부분과 남쪽 일부에 산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금강과 미호천 등의 국가하천이 흐르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2011). 이렇듯 대전·세종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림과 하천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지역학연구는 역사와 사회·문화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역사적 의미와 현황을 검토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전·세종의 경우 갑천 등 일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지역학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전·세종 전체의 자연환경 현황과 역사적 의미, 보전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대전·세종의 자연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타지자체 연구 동향을 검토하여, 향후 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지역학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대전세종 지역학 관점을 통해 본 자연환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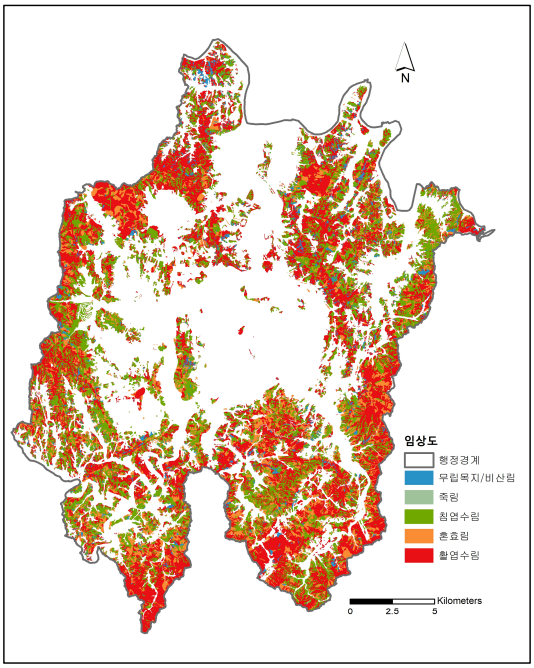
(1) 대전

대전은 외곽을 중심으로 산림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30.2km^{2}로 전국 산림대비 0.5%, 행정구역 대비 56%이다. 대전 전체 산림을 임상별로 구분하면 침엽수가 약 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혼효림과 활엽수 순으로 나타난다.

[표 5-1] 대전광역시 산림 및 산지 면적 현황

구분	행정구역 면적(ha)	산림면적		산지면적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전국	10,014,822	6,368,843	63.6	6,431,305	64.2
대전광역시	53,989	30,175	55.9	28,389	52.6
전국대비 면적 비율(%)	0.5	0.5	-	0.5	-

출처: 대전광역시 (2014)



[그림 5-1] 대전광역시 임상도

출처: 대전광역시 (2014)

대전의 수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은 국가하천이 4개, 지방 2급 하천이 26개, 소하천 8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하천은 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으로 총 하천 연장이 90.92km에 달한다. 대전천의 경우 지방1급 하천이었으나, 최근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다.

[표 5-2] 대전광역시 주요 하천 현황

하천명	하천연장(km)	기 점	종 점
소 계	83.2		
금 강	34.14	동구 주촌동	유성구 금탄동
갑 천	33.53	서구 용촌동	유성구 봉산동
유등천	15.53	중구 침산동	서구 삼천동
대전천	7.70	중구 옥계동	동구 오정동

출처: 대전세종연구원 (2021)

대전에서는 자연환경조사를 10년 단위로 수행하고 있다. 1차 자연환경조사는 2002년, 2차 자연환경조사는 2012년에 약 2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2022년에 3차 자연환경조사가 수행될 예정이다.

2차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파악된 생물상 현황을 보면, 식생의 경우 대전은 총 3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상수리나무군락과 리기다소나무군락, 소나무군락 등이 주요 우점 식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 식생의 경우에는 달뿌리풀군락과 버드나무군락 등이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조사결과, 대전은 138과 764분류군(166종, 11아종, 63변종, 4품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관속식물 중 쌍자엽식물이 552분류군, 단자엽식물은 164분류군, 양치식물이 33분류군, 나자식물이 15분류군으로 구분되었다.

[표 5-3] 대전광역시 상관식생 현황

구 분	식물군락 유형
산림식생	아까시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신갈나무-굴참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소나무-졸참나무군락, 소나무-상수리나무군락, 소나무-밤나무군락, 소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신갈나무-상수리나무군락, 상수리나무-아까시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밤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굴참나무-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밤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곰솔군락, 일본잎갈나무군락, 밤나무군락, 물오리나무군락, 은사시나무군락 (22개 유형)
하천식생	고마리군락, 물억새군락, 갈대군락, 달뿌리풀군락, 버드나무군락 (5개 유형)
농경지 및 초원식생	환삼덩굴군락, 찔레나무군락, 왕버들군락, 망초군락, 뽕나무군락 (5개 유형)

출처: 대전광역시(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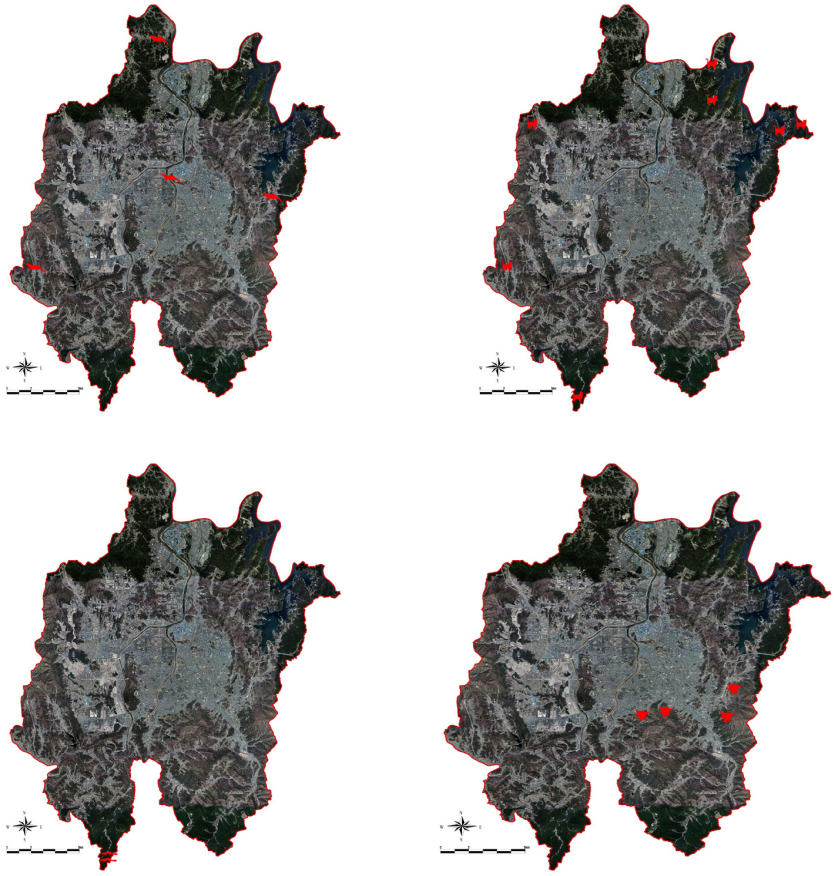
[표 5-4] 대전광역시 식물상 현황

분류군 \ 체 계	과 (Family)	종 (Species)	아종 (Subspecies)	변종 (Variety)	품종 (Forma)	소계
양치식물	14	32	-	1	-	33
나자식물	5	15	-	-	-	15
피자식물	119	639	11	62	4	716
목련강(쌍자엽식물)	102	493	9	47	3	552
백합강(단자엽식물)	17	146	2	15	1	164
합 계	138	686	11	63	4	764

출처: 대전광역시(2014)

대전에 서식하는 동물상 현황을 분류군별로 조사한 결과, 포유류는 총22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법정보호종으로 수달과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총 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는 총 92종이 3,085회에 걸쳐 관찰되었으며, 법정보호종으로는 소쩍새, 수리부엉이, 두견이, 흰목물떼새, 새매, 붉은배새매, 흰꼬리수리, 황조롱이, 원앙 등 10종이 확인되었다. 양서·파충류는 각각 11종씩 총 22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법정보호종으로는 남생이(천연기념물 제 453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Ⅱ급) 1종이 확인되었다. 어류는 5목 10과 54종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법정보호종으로는 갑천의 미호종개(천연기념물 제454호, *Cobitis choi*)와 유등천의 감돌고기*(Pseudopungtungia nigra)* 2

종이었다. 육상곤충은 총 11목 79과 336종이 확인되었으며, 저서무척추동물의 경우 총 3문 5강의 15목 36과 56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그림 5-2] 대전광역시 법정보호종(포유류) 분포 현황

출처: 대전광역시(2014)

대전의 보호야생생물과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파악한 결과, 국가지정 야생생물보호구역은 대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계룡산 국립공원 1개소로 나타났다. 계룡산은 행정구역 상 대부분이 공주시(41.15km^2)에 속해 있으며, 논산 및 계룡시(13.01km^2), 대전광역시(6.82km^2)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괴곡동의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700여년으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주요 습지의 경우 대전 내 8개의 습지가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특히, 추동습지는 30여 년간 담수화된 습지로 국내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공호수이다. 또한, 시에서 지정한 보호야생생물은 총 41종이며, 포유류 3종, 조류 11종, 양서·파충류 4종, 어류 6종, 곤충류 9종, 식물류 8종 등이고 시 지정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총 5개소이다.

[표 5-5] 대전광역시 보호야생생물 현황

분류군	종수	종 명 (種名)
계	41	
1. 포유류	3	족제비, 고슴도치, 멧밭쥐
2. 조류	11	해오라기, 뻐꾸기, 큰오색딱다구리, 청호반새, 호랑지빠귀, 동고비, 꾀꼬리, 후투티, 꺅도요, 개똥지빠귀, 오색딱다구리
3. 양서·파충류	4	두꺼비, 무자치, 도룡뇽, 북방산개구리
4. 어류	6	동사리, 눈동자개, 가시납지리, 동자개, 중고기, 자가사리
5. 곤충류	9	사슴풍뎅이, 왕오색나비, 유리창나비, 장수풍뎅이, 길앞잡이, 큰녹색부전나비, 늦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6. 식물류	8	개비자나무, 흰털괭이눈, 넓은잎각시붓꽃, 까치밥나무, 연복초, 사철란, 솔붓꽃, 앵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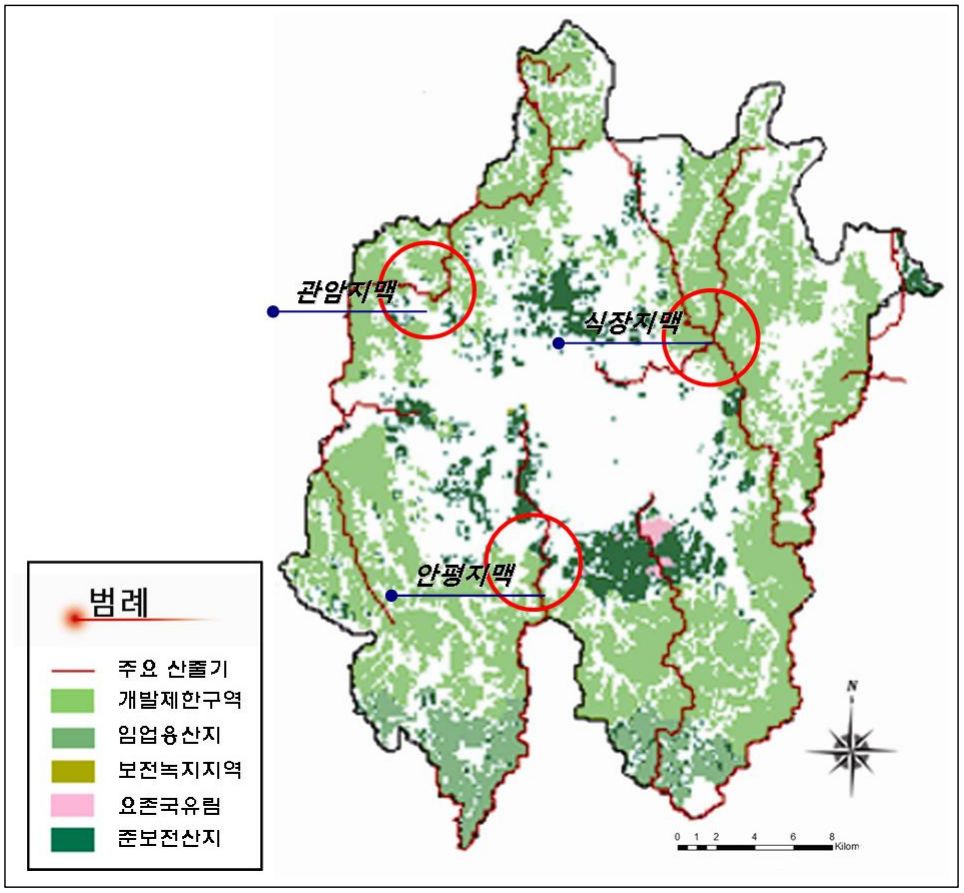
대전의 산줄기 분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정맥과 기맥은 지나지 않으며, 시 경계를 중심으로 관암지맥과 안평지맥, 식장지맥 등 3개의 지맥과 10개의 세맥이 분포하고 있다. 대전의 산줄기는 국가 차원의 핵심적 위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적 차원 및 세종 등 인접 지자체와의 연결성 차원에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6] 대전광역시 산줄기 분포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대간	정맥	기맥	지맥	세맥
전국	863	1	7	6	149	700
대전광역시	13	-	-	-	3	10
전국대비비율(%)	1.51	-	-	-	2.01	1.43

출처 : 대전광역시(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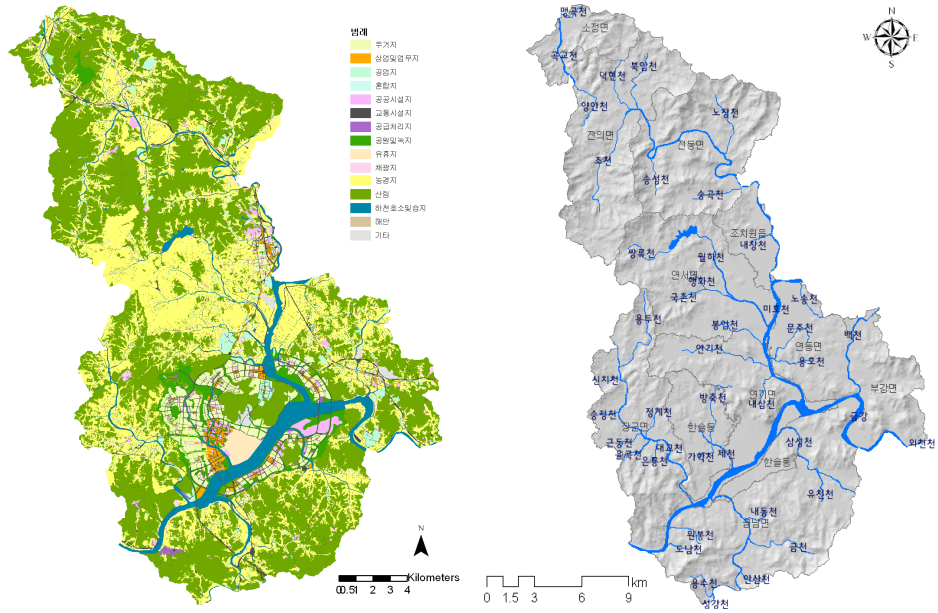
[그림 5-3] 대전광역시 산줄기 분포도

출처: 대전광역시(2014)

(2) 세종

세종은 전체 면적의 4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으로는 농경지가 약 30%, 수공간이 약 5.6%로 자연공간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이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되면서, 계획도시가 조성되고 인근까지 확장되면서 자연환경이 질적·양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은 대부분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 일부 분포하고 있다. 북쪽에는 운주산(459m)과 국사봉(402.7m), 금병산(364m), 작성산(331.5m) 등 비교적 낮은 산악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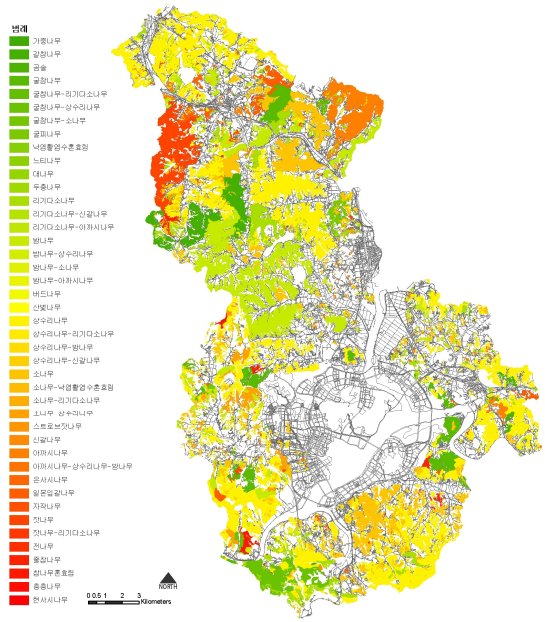
세종시 내에는 금강과 미호천 등 국가하천 2개소를 포함하여 조천과 곡교천 등의 지방하천 43개소, 소하천 204개소가 흐르고 있다. 특히 금강과 미호천은 연기면 세종리에서 만나 남서 방향으로 흐른다.



[그림 5-4] 세종시 토지이용현황도 및 수계도

출처: 세종시(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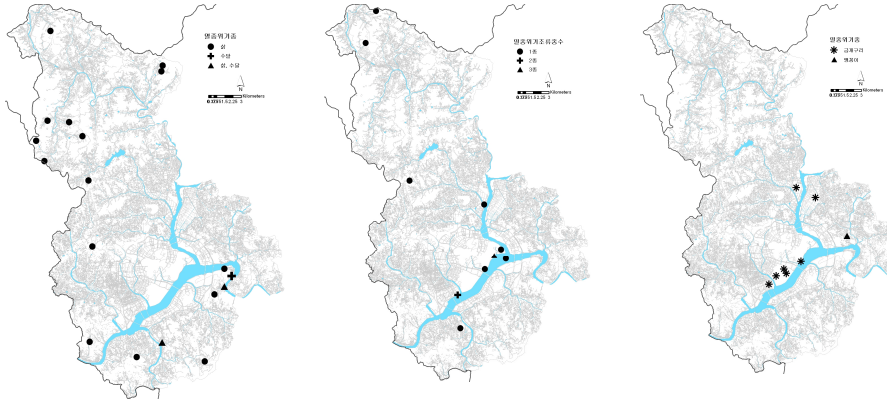
세종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통해 파악된 생물상 현황을 보면, 식생은 총 66개의 상관식생 군집으로 구분되며, '상수리나무-졸참나무 군락'이 전체 면적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밤나무-아까시나무' 군집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5] 세종시 현존식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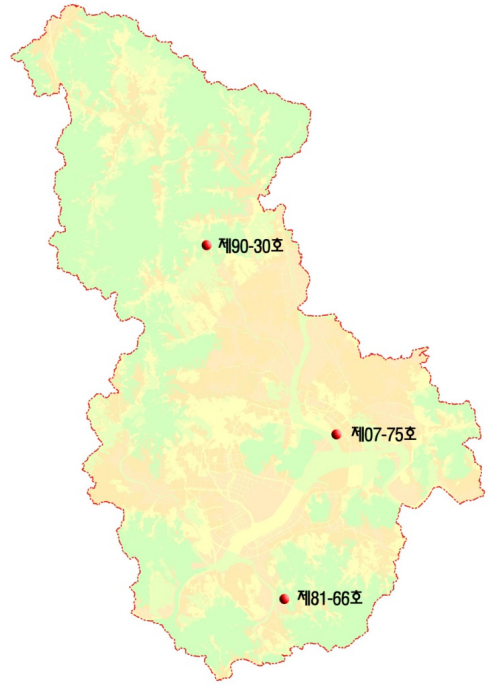
출처: 세종시(2011)

세종시 동물상 현황을 분류군별로 파악한 결과, 포유류는 12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고라니의 서식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조류는 61종 3,329개체가 관찰되었으며, 최우점종은 참새였고, 다음으로 흰뺨검둥오리, 멧비둘기, 붉은머리오목눈이, 직박구리 순이었다. 또한, 양서류는 10종, 파충류는 7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청개구리와 유혈목이가 각각 가장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총 39종이 확인되었으며, 멸종위기종은 조사되지 않았고, 한국고유종으로 돌마자, 가시납지리 등 7종이 확인되었다. 또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의 경우 고복리, 감성리, 합강리 등 3지점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17.6ha에 달하였다.



[그림 5-6] 세종시 서식 멸종위기야생생물

출처: 세종시(2011)



[그림 5-7] 세종시 야생생물보호구역 현황

출처: 세종시(2011)

3) 생태환경 분야의 지역학 연구 동향 및 대전·세종 연구 방향

(1) 생태환경 분야의 지역학 연구 동향

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지역학 연구는 일부 지자체에서 수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연구원의 강원학연구센터에서 「이야기가 있는 강원의 산, 강, 해안, 동물, 식물」을 발간하였다(강원연구원 2018). 5개의 자연물을 대상으로 역사와 현황 등을 정리하였다. 강원학지식총서 1, 2, 3인 「이야기가 있는 강원의 산, 강, 해안」은 '지리로 보는 강원의 산, 강, 해안', '역사로 보는 강원의 산, 강, 해안', '강원의 산, 강, 해안과 사람들'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강원학지식총서 4, 5인「이야기가 있는 강원의 동물, 식물」은 강원의 주요 동·식물을 이야기하듯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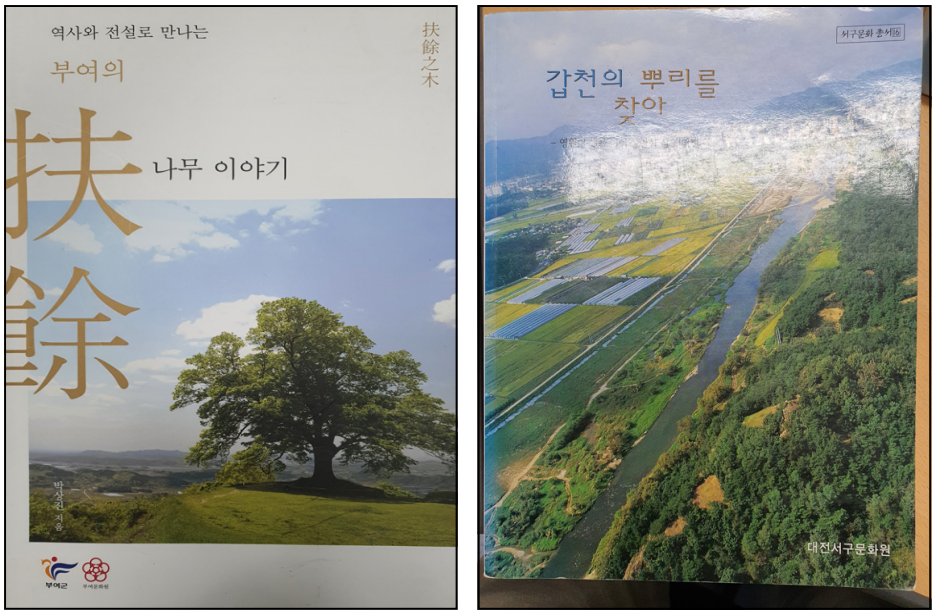


[그림 5-8] 이야기가 있는 강원의 산, 강, 해안, 동물, 식물

출처: 강원연구원(2018)

부여에서는 「역사와 전설로 만나는 부여의 나무 이야기」를 발간하였다. 여기에서는 부여를 대표하는 문화재 고목나무, 부여 문화재와 함께한 숲 나무, 부여 땅의 대표 보호수 및 고목나무, 백제 유적에서 출토되는 나무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여에 있는 주요 숲과 나무를 설명하고 이것들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부여군 2019).

대전에서는 주요 하천 중 하나인 갑천을 대상으로 「갑천의 뿌리를 찾아」를 발간한 바있다(대전서구문화원 2003). 이를 통해 갑천의 발원지, 문화유산, 태고사에 얽힌 전설 등 갑천의 역사와 전설에 대한 내용을 갑천을 끼고 있는 마을들과 연계하여 기록하였다. 특히, 책의 뒷부분에서는 갑천의 개발압력과 역사적·생태적 중요성, 문제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갑천의 미래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림 5-9] 부여 및 대전의 지역학 연구 관련 저서

출처: 부여군(2019), 대전서구문화원(2003)

(2) 생태환경 분야의 대전·세종 지역학 연구 방향

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지역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세종지역학센터를 중심으로 생태환경 분야의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생태환경 전문가, 지역 역사학자, 환경단체,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생태환경 분야의 지역학 연구를 위한 아젠다 발굴 및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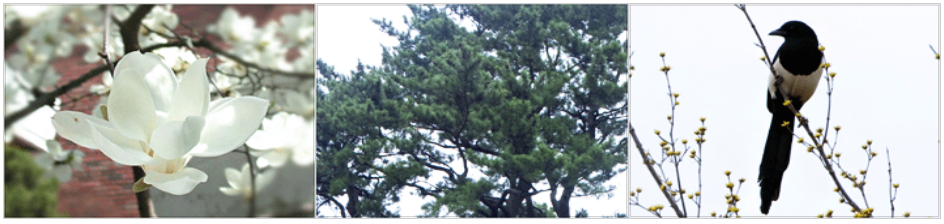


[그림 5-10] 위원회 운영의 예
(좌: 깃대종 선정위원회, 우: 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위원회)

출처: 대전발전연구원(2013), 대전세종연구원(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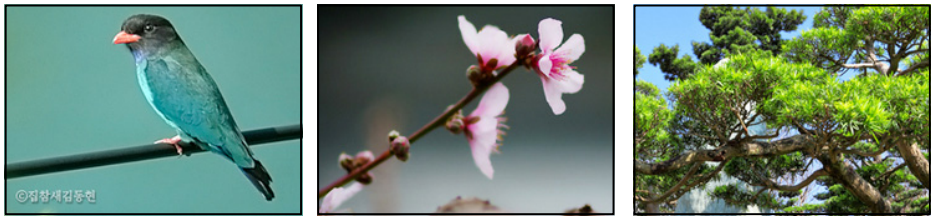
생태환경 분야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전세종의 주요 자연환경 현황과 역사 등을 세종실록지리지 등과 같은 각종 고서나 구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전세종의 역사성·상징성이 깊은 주요 생태환경과 보전의 중요성을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는 과거에 대전의 대표종인 소나무와 백목련, 까치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외 관련 동향을 파악한 후, 대전의 과거 상징적인 동·식물을 검토하여 대표종을 진단하고 정책제언을 한 사례가 있다(대전세종연구원 2015). 세종의 경우에도 현재 파랑새와 복숭아꽃, 소나무가 상징물로 선정되어 있으나, 선정 사유나 시민 인식, 홍보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1] 대전의 대표종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그림 5-12] 세종의 새(파랑새), 꽃(복숭아꽃), 나무(소나무)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참고문헌

강원연구원(2018), 『이야기가 있는 강원의 산, 강, 해안, 동물, 식물』, 강원학지식총서 1-5.

김기희 외(2015a),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Ⅰ)』,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15-34.

김기희 외(2015b),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Ⅱ)』,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15-77.

김경수(2006), 「지역학의 정체성과 방향성」, 『世界地域硏究論叢』 제24권 제1호, 5-25쪽.

김민영(2016), 「항구도시의 지역학 발전과 '군산학(群山學)'의 활성화 방향」, 『韓國島嶼硏究』 제28권 4호, 1-14쪽.

김성철·어하준(1994). 「가중치 결정에서의 다수 전문가 의견 종합 방법」, 한국경영과학회지 제19권 3호, 41-51쪽.

김영화·김태일(2012), 「'대구경북학'의 모색: 다른 지역학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5권 1호, 117-147쪽.

김학훈(2014), 「한국의 지역학 30년 :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제30권 제4호, 87-103쪽.

노영순, 이상열(2018).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전광역시(2012), 『대전광역시 산지지역조사』.

대전광역시(2014), 『대전광역시 산지관리지역계획』.

대전서구문화원(2003), 『갑천의 뿌리를 찾아서』, 서구문화총서.

문병효(2021),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대응방안-이른바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71호, 제21권 제3호, 243-288쪽.

박노동(2014),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과 과제』, 대전발전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4-04.

박승현(2017),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의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일본비평』 제9권 제1호, 158-183쪽.

박진한·남상욱·이호상(2016), 「인천학의 현황과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공간정보기술의 활용과 디지털 인문지도의 구축」,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17권 3호, 33-62쪽.

박충환(2020), 「글로컬 문화지형과 지역학으로서 '영남학'의 위치」, 『嶺南學』 제73

호, 7-58쪽.
부여군(2017), 『역사와 전설로 만나는 부여의 나무이야기』, 부여문화원.
세종특별자치시(2011), 『세종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양기근(2006), 『경남학의 연구 동향과 정립방향에 관한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중점정책연구 기본연구 2006-03.
양기근·강창민·양덕순(2007), 「지역학의 연구동향과 정책적 과제: 경남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1권 제2호, 237-264쪽.
오영교(2019),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 『韓國島嶼硏究』 제28권 4호, 147-180쪽.
이은재 외(2013), 『대전시 깃대종 선정 및 보전·활용 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14-05.
이은재(2021), 『대전광역시 야생생물보호세부계획 수립』,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2016-32.
이윤갑(2004),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 지역학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東方漢文學』 제26권, 8-38쪽.
이재민 외(2020),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2020-53.
이재민(2020), 「공간생산이론을 통해 본 지역문화콘텐츠의 창출과정과 의미: 칠곡군 영오리 사례」, 글로벌문화콘텐츠 제7권 제1호, 1-26쪽.
임재해, 「마을 민속 조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연구』 11, 2002, 9-50쪽.
조원준(2006), 「지역학 접근에 관한 고찰」, 『일본어문학』 제32집, 일본어문학회, 581-596쪽
조근태 (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정해조(2007),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Ⅱ」,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제1호, 277-298쪽.
최재헌(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8권 제2호, 1-18쪽.
하병주(2007),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Ⅰ」,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제1호, 249-276쪽.
한상헌 외(2016),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정체성 인식에 관한 지역별 사례조사』,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16-27.
한상헌 외(2017), 『도시정체성 재정립연구 4-정체성 인식에 관한 사례조사』,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2017-17.
한상헌 외(2019),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

구원 기획연구 2019-02.
대전시 보도자료(2022.1.5.). 대전시, 시사편찬자료실 자료 1만여 건 목록화 완료. URL: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389947264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정레브리핑 자료(2021.10.7.). URL: https://www.sejong.go.kr/bbs/R0080/view.do?nttId=B000000051585Li1fS0k&mno=sub02_0402&cmsNoStr=&kind=&pageIndex=2
대덕문화원 홈페이지. 신탄진 아카이브 매핑. URL: http://www.ddcc.or.kr/sub_07/0701.php
이준희(2021.12.16.). 대덕문화원, 대덕도시문화기록 아카이브사업 성과 공유회 성료. 〈뉴스밴드〉. URL: http://www.newsband.kr/news/articleView.html?idxno=369819
오!대전 홈페이지. URL: http://o-daejeon.org/
이유나(2022.2.6.). 성심당 복합문화공간 '성심당 문화원' 오픈 예정. 〈중도일보〉. URL: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205010000654
호남고고학회 홈페이지. URL: http://www.hnas.or.kr/html/sub03_03.asp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 URL: https://cihc.or.kr/kor/BBSMSTR_000000000070/3369/view.do
예천뉴스(2020.10.7.). 경북, 낙동강 문명사 연구 마무리. 〈예천뉴스〉. URL: http://www.ycn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04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역사와 문화 교과서 발간. URL: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20988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합의. https://www.daejeon.go.kr/drh/drhStoryDaejeonView.do?boardId=blog_0001&menuSeq=1479&ntatcSeq=1356125198
황봉규(2020.8.5.). 영남 5개 시·도지사 "수도권 대응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하자".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5081600052
장영애(2021.12.3.). 광주시·전남도,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아이뉴스24〉. URL: https://www.inews24.com/view/1429167
대구경북연구소. 〈대구경북연구〉. URL: http://www.dgi.re.kr/RJournal
DBpia. 〈인천학연구〉. URL: https://www.dbpia.co.kr/journal/voisDetail?voisId=VOIS00634513

DSI

부 록

전국 지역학 연구 기관의
주요 학술 행사 개최 목록

※ 전국 지역학 연구 기관의 주요 학술 행사 개최 목록

〈한국지역학 포럼〉

회차	주제	내용
1차	한국지역학포럼 (창립포럼)	
2차	한국지역학 발표와 토론	- 1부 주제: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학문 - 1부 발제: (서울학) 서울학의 범주와 시야/ (부산학) 부산정체성의 발견과 부산학/ (대구경북학) 지역은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
4차	지역학과 지역문화콘텐츠	
5차	지역학 자료의 기록화와 보존·활용	- 1부 주제: 제주학 자료 기록의 중요성 - 1부 발제: 지역학 자료기록의 중요성과 산업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 제주학 아카이브 개설과 활용 - 2부 주제 : 도성 읍성의 가치와 보존 활용 방안 - 2부 발제 : 서울 성곽마을의 가치와 보전 관리 방향, 수원 고읍성과 주변 문화유책의 정비와 활용, 인천의 산성, 영남지방의 고대 성곽의 기원과 전개과정, 전주부성 축성록, 해미읍성의 역사성과 관광자원화, 청주읍성의 역사적 가치와 현황, 제주읍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 3부 토론 : 지역학 발전을 위한 공동아젠다 모색
6차	성곽도시, 도시마을	- 1부 주제: 지역학연구와 지역정체성 - 2부 주제 : 지역의 도시정체성
7차	각 지역의 민속·도시문화 – 지역의 도시·민속문화의 가치와 활용	- 1부 발제: (부산학) 부산 영도 창고군의 형성과정과 문화변화/ (제주학) 지역문화의 가치 발견과 세계화 정책-제주 해녀를 중심으로/ (경기학) 용인 민속문화의 가치와 활용 사례/ (인천학) 인천의 민속/ (서울학) 서울의 전차문화
8차	도시의 근대. 근대의 유산	- 1부 발제 : (울산학) 울산의 근대화와 도시화 과정/ (제주학) 제주의 근대역사문화 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 발전 방향/ (전주학) 전라감영 복원과 전라북도 구도청 철거/ (대구학) 시민공동체 문화 재창조 도시, 대구/ (서울학) 서울 미래유산 보전 프레임워크, (인천학) 인천의 '근대유산' 활용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9차	지역학과 시민참여	- 1부 주제 : 도시, 정체성을 찾다 - 1부 발제 : 대구경북 사회경제적 과제와 지역 정체성/ 제주의 지역 정체성과 미래비전/ 지역적 가치와 지향에

회차	주제	내용
		대하여: 당대 충북인을 중심으로/ 울산지역 문화산업정책 추진과 지역학의 연계 - 2부 토론 주제 :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학
10차	지역학과 마을이야기	- 1부 발제 : 서울 한양도성에서 서촌의 위상과 현재적 의미, 마을조사 및 기록사업의 현황과 활용 방안 - 경기도 마을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조사의 필요성과 전주지역 사례, 동래 안락서원과 기억, 제주지역 마을기록의 역사와 전망
11차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방법과 실제	- 1부 발제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현황과 실제, (인천학) 아카이브 구축의 현황과 실제, (울산학) 연구 현황과 아카이브 구축 방향, (경기학) 아카이브 구축의 현황과 실제, (부산) 근·현대 아카이브의 생성, (대구학) 아카이브 현황과 실제
12차	지역학 연구기관의 운영방향	- 1부 발제 : 강원학 연구 현황과 과제, 지역문화산업활성화와지역학의역할, 경기학의사업대상과실천방안, 대구시사편찬에관한기본설계
13차	산·강 그리고 지역문화	- 1부 주제 : 강원학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미래 - 1부 발제 : 낙동강 고대문명사 연구와 열린지역학/ 한강개발과 현대서울의 탄생/ 호남평야의 젖줄 동진강과 지역문화/ 강원지역 명산의 이념적 착색과 변모 - 설악산과 오대산을 중심으로 - 2부 토론 : 열린 강원학을 위한 제언
14차	지역문화와 교통	- 1부 발제 : 경기도 옛길 사업의 이해/ 대구경북의 문화적 특성과 대륙해방의 길/ 인천 교통의 어제와 오늘, 부산보행문화의 현황과 과제
15차	지역발전과 지역학의 역할	- 1부 발제 : 강원도 누정자원조사의 지역적 의미와 가치화/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지역학의 응용과 과제/ 도시미래를 위한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 - 대전·세종의 현안을 중심으로/ 인문문화자산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16차	지역정신과 지역학	- 1부 발제 : 경기도 정체성과 경기학의 과제/ 부산정신과 부산인의 기질에 관한 소고(小考)/ 제주 정체성 정립과 구비철학의 재발견/ 대구경북의 지역문화와 성숙한 개인주의/ 전주정신의 현재와 미래/ 전북학 연구의 방향과 과제
17차	지역경관과 지역학	- 1부 발제 : 부산의 경관과 지역적 특성/ 소멸되는 장소성과 사라지는 기억들/ 전주 지리경관의 특성으로 본 전통의 시대/ 봉의산과 소양강에 담겨있는 춘천의 정체성/ 천고(千古)의 인연-용승(湧昇)이 만든 울산의 자연. 문화 경관

〈수원학 포럼〉

회차	주제	내용
1회	수원학의 현황과 전망	
2회	수원학연구센터의 연구 주제와 연구지원 사업의 방향	
3회	수원학 강좌의 현황과 발전방향	
4회	수원학 교재 편찬 방향	
5회	지역학의 개념과 수원학 교재 편찬	- 1부 발제 : 지역학의 개념과 수원학, 수원학 개설
6회	수원지역 교육기관과 민족운동(인문학 특강)	
7회	교재로 담아내는 수원의 역사와 문화	- 주요 내용 : 수원학 교재 초고 논평
8회	수원의 사회와 문화(수원학 교재 사회문화편 기획방향)	- 1부 발제 : 수원학 개설 사회문화편 준비를 위한 제언 - 주요 내용 : 서울의 인문학 도서 발행 사례 검토, - 교재로 간행 가능한 수원의 사회문화 분야 논의, 교재출판에 관한 논의
9회	수원의 마을문화와 커뮤니티 아트	- 주요 내용 : 수원의 마을만들기 문화활동 현장에 대한 질문 / 수원에서의 활동 경험 및 과정에서의 문제와 한계, 대안 및 개선방안
10회	수원시사편찬 중장기 운영계획	- 주요 내용 : 시사편찬에 대한 대사회적 공감대 형성, 라키비움의 필요성, 시사사업의 정체성 확립 필요
11회	수원과 문학	- 1부 발제 : 수원 문학 연구의 현황과 방향 - 주요 내용 : 근대 초기의 수원문학(인), 수원문학의 연구범위와 방향, 수원 문학의 정체성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
12회	정조대왕 화산능행차 최초 재현의 유래	- 1부 발제 : 정조대왕 화산능행차 최초 재현의 유래 - 주요 내용 : 1975년 수원화성정화복원사업과 능행차 재현과정
13회	수원 청년문화의 역사와 과제	- 1부 발제 : 1970~80년대 수원 청년에 대한 기억들, 2000년대 후반 이후 수원 청년 문화 활동의 특성 - 주요 내용 : 과거 청년 문화'운동'과 현재 청년 문화'활동'의 특성과 변화상

회차	주제	내용
14회	수원 미술과 아카이브 구축	- 1부 발제 : 지역단위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가치와 과제, 수원 미술의 개념과 범위 - 토론 : 수원 미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15회	지역공동체와 아카이브	- 1부 발제 : 지역공동체와 아카이브 - 토론 :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16회	GIS와 수원학의 미래	- 1부 발제 : GIS를 활용한 도시역사지리 연구 방법론, 공간정보의 변화와 활용
17회	디지털 인문학과 수원학의 방향	- 1부 발제 : 디지털 인문학과 수원학-지역문화 백과사전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융합 방향
18회	수원지역 구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1부 발제 : 수원지역의 구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19회	타 지역 사례를 통한 시사편찬의 방향	- 1부 발제 : 서울시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역사편찬원으로/ 서울역사연구 현황과 새로운 모색-서울역사편찬원을 중심으로
20회	수원시 기록관 운영현황과 과제	- 1부 발제 : 수원시 기록관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가평군의 기록관리 현황과 발전 방향
21회	지역학과 지역문학	- 1부 발제 : 지역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수원학과 수원문학연구의 과제

〈인천학 포럼〉

회차	주제	내용
1차	인천학 아카이브 구축과 관광 콘텐츠 개발	- 1부 발제 :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인천 관련 이미지 자료의 현황과 문제, 개항도시 제물포 각국 조계지 회의록의 특징 - 2부 발제 : 지도를 통한 지역정보 활용방안 사례, 인천 관광 콘텐츠 개발 방향
2차	인천학 아카이브 구축 방안과 실제	- 1부 주제 : 인천학 디지털콘텐츠 구축 방안 - 1부 발제 : 인천학의 현황과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 공간정보기술의 활용과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의 실제, 지도기반의 인천학 아카이브웹서비스 방안 - 2부 주제 : 인천학 디지털콘텐츠 구축 실제 - 2부 발제 : 조선신문의 발행과 인천관련 기사의 현황 - 1906년 ~ 1915년을 중심으로, 청안(淸案)을 통해 본 구한말 조선의 외교 정책
3차	인천 역사·문화·지리학 연구의 재조명	- 1부 발제 : 인천지역사 연구 어디까지 왔나? - 최근 20년 간 역사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중심으로, 인천지역 문화재 안내문과 공공언어, 인천시 중국 국적과 일본 국적의 주거지 분화 : 일제강점기와 현대

〈전북학 포럼〉

회차	주제	내용
1회	전북학연구센터 개소식 및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기념 공동세미나	- 1부 발제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의 의의, 동학농민혁명의 지역간 연계전략
2회	전북유학의 정체성과 활성화 방안	- 1부 주제 : 전북학의 저변, 전북 유학의 정체성 - 1부 발제 : 전북 선현의 문집 현황과 번역의 필요성, 실천적 지식인의 성지 전북 유학의 정체성

〈경기학 포럼〉

회차	주제	내용
1회	인문과 지역의 정신 문화	- 1부 발제 : 기조강연「지역학의 가능성과 미래」,「시흥의 교육자 최긍렬 선생의 정신유산 고찰」,「오리 이원익과 청렴도시 광명」,「미수허목의 철학과 연천에 미친 영향」,「안산의 문예부흥과 강세황」
2회	사라져가는 마을과 민속 - 마을조사 현황 정리 및 향후 계획	
3회	경기도 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	- 2부 발제 : 도시에서의 민속문화를 활용한 축제개발방향, 경기도문화원 중심의 축제의 현황과 과제, 이천의 축제문화,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포은문화제를 통해 본 지역축제의 개선방안, 지역축제의 발전방안과 지역브랜드 가치
4회	경기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현황	- 1부 발제 : 경기 지역 의병전쟁 연구의 제문제, 이천의 구한말 항일 의병투쟁, 남한산성 일대의 의병전쟁, 경기북부 포천, 영평, 양주지역 항일 의병투쟁 활동, 1896 년 남한산성 연합의진과 용인의병

〈충북학 포럼〉

회차	주제	내용
1차	지역학 왜,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충남 남부권의 역사와 문화(文集으로 본 옥천의 선비정신)	
3차	충북지역 문학관 건립과 운영의 새로운 방향	- 1부 주제 : 충북 지역 문학관 건립에 대한 제언 - 1부 발제 : 문학관 건립과 운영의 새로운 방향, 충북 문학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 충북지역 문학관의 현재와 미래
4차	충북의 기억과 의미	- 1부 발제 : 충북지역 6.25 전쟁의 특징과 성격, 6.25전쟁에 따른 충북 지역 변화

〈제주학 정책세미나, 학술대회〉

회차	주제	내용
정책 세미나	디지털시대의 제주학아카이브 발전방안 - 지역학아카이브의 역할과 제주학아카이브의 미래	- 1부 주제 : 로컬리티 기록화와 제주학아카이브의 역할 - 2부 주제 : 제주학아카이브 현황과 발전방안, 이용자 친화적 지역인문자원 통합관리모델 연구, 제주학아카이브의 구술자료관으로서의 가능성과 과제, 제주학아카이브 시스템 설계 : SW/HW 시스템 관점에서 최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4회 학술 대회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	- 1부 주제 : 집합기억과 제주 정체성 - 1부 발제 :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에서, 제주 정체성과 근대성에 대한 철학의 문제들, 시대가 기억해야 할 제주의 작가들 - 2부 주제 : 사회변동과 제주 정체성 - 2부 발제 : 제주개발체제와 지역정체성의 정치 그리고 대항운동의 과제, 이주다문화와 제주(지역) 정체성

〈공주학 포럼〉

회차	주제
1회	옛 사진으로 공주의 과거를 거닐다
2회	나의 공주 사진 30년
3회	공주사대의 마지막 학장시절
4회	공주의 문학 -공주의 근대 문예지 "백웅"에 관하여
5회	나의 백제문화 연구와 무령왕릉
6회	공주 문학 이야기
7회	무령임금은 어떤 얼굴일까요
8회	무령왕릉의 금, 어디서 왔나
9회	콘텐츠로서의 계룡산, 현황과 과제

〈세종학 포럼〉

회차	주제	내용
1회	새로운 실험의 무대 세종시, 삶의 장소로서 미래를 그리다	- 1부 주제 : 세종학 추진 방향 모색 - 2부 주제 : 계획의 실험무대 세종시의 도시공간과 일상생활
2회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

ISBN 979-11-6075-288-5 93350